







The Camden Town 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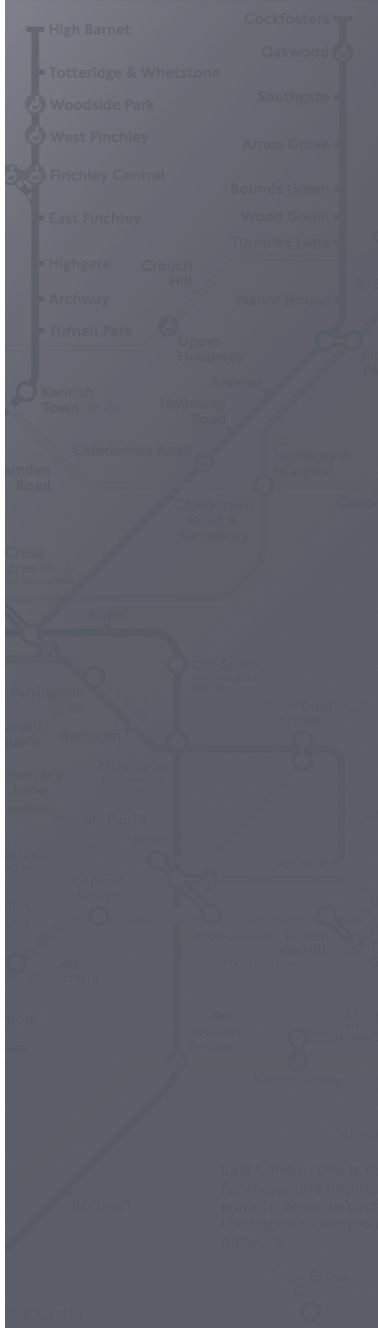


© Transport for London

MAYOR OF LONDON

Website [tfl.gov.uk](http://tfl.gov.uk)





[발간사]  
영국탐방과 우려먹기 ..... 6P

[들어가는 글]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 10P

###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

- 자율, 자치, 참여의 힘 유쓰리 에이(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 22P
- 목공소에서 꿈꾸는 공동체 더 캠던 타운 셰드(The Camden Town Shed) ..... 32P

###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 ‘빅 소사이어티’를 향해 테이크 파트(Take Part) ..... 48P
- 느슨해야 참여한다 더 유(The U) ..... 58P

### 아래로부터의 학습(Bottom-up Learning)

- 풀뿌리가 만드는 평생학습 더블유에이(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 70P
- 이웃이 이웃을 이끈다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 ..... 81P

### 기타

-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학교 �쿨 오브 에브리싱(School of Everything) ..... 96P
- ‘공간+α’를 빌려드립니다 더 허브(The Hub) ..... 102P
- 실속차린 평생학습 축제 어덜트 러너즈 위크(Adult Learners' Week) ..... 112P
- 영국 평생학습계의 맏언니 나이에이스  
(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 ..... 118P
-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더 �쿨 오브 라이프(The School of Life) ..... 124P
- 영국에서 불어오는 ‘수상한’ 바람 대안교육 운동 (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 ..... 131P

[나오는 글]  
영국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 138P

## 영국탐방과 우려먹기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나는 참 슬픈 시인이다 / 울귀먹을 빼가 없는 것이다.”

전남용의 시 「울귀먹다」의 첫 구절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쓰이는 ‘울귀먹다’라는 말. 이 말은 사실 비표준어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려먹다’입니다. 살기 팍팍한 시절에는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몇 번씩 우려먹기도 했고, 찻잎 같은 경우 몇 번씩 달여 먹기도 했으니 ‘우려먹다’는 한국인에게 퍽 친숙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 ‘우려먹다’와 유사한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이니 ‘우려먹다’와 어금버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려먹다’는 재탕의 뉘앙스가 강하고 ‘원 소스 멀티 유즈’는 다양한 활용 능력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 정확히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기는 매일반이라 생각합니다.

6

수원시평생학습관 탐방단 4명이 2012년 5월 13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우려먹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우려먹기 혹은 원 소스 멀티 유즈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아이템 창고에 다양한 영국사례와 아이디어를 축적한다.
- 이번 기회에 해외 선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격주로 발행하는 동향리포트 웹진 ‘와’에 영국 탐방기를 연재한다.
- 지역 언론에 해외 평생학습 사례를 기획 연재한다.

- 이번 방문길에 맺은 인연을 통해 영국 관계자를 초빙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탐방 결과를 꼼꼼히 정리해 자료집을 발간한다.

일부 계획은 예정대로 실행되었지만, 아쉽게도 지역 언론 연재는 없던 일이 되었고, 국제 심포지엄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남은 우려먹기 아이템인 자료집 발간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간사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자료집 제작 하나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화성(火星)처럼 아주 새로운 곳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한 십 년 동안 상주하며 공을 들인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80년대 해외 여행 처음 해본 사람처럼 온갖 촌티를 풀풀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계면쩍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해외탐방을 기획할 당시 우리의 화두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 왜 영국에 가는가
-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보고 듣고 배운 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우리는 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어떻게 연수 결과물을 많은 기관, 단체, 개인들과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연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사점과 영감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적기관으로서의 평생학습관의 소임, 그리고 허브역할을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관 설립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녀온 분이 전하길 꾸리찌바시의 홍보담당관이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에서 온 분들은 왜 매번 똑같은 질문만 하느냐”고 했습니다.

꾸리찌바는 워낙 유명한 도시라 많은 분이 다녀왔지만, 보통 연수 뒤에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문서로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그저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늘 첫 번째 방문자인냥 행동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복기(復棋)가 아니라 미래의 안내서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시민이 단지 강좌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

서고, 더 나아가 시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이에 대한 고민은 더욱 자극을 받았고 작은 실마리를 건졌습시다만,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영국이 아닌, 바로 이 곳 대한민국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이후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탐방단이 방문한 곳 중에는 많이 알려진 곳도 있어서 선도(鮮度)도 떨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물이 아니기에 깊이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자료집이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온 낯선 방문객을 따듯하게 맞이해 준 영국 기관 관계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수없이 발품을 판 수원시평생학습관 식구들, 그리고 끝까지 자료집 제작을 위해 애를 써준 정선영씨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탐방에 대한 ‘우려먹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





##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2012년 5월 13일, 영국 평생학습계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수원시평생학습관 탐방단이 길을 떠났다. 6박 8일의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비행기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탐방이 가능한 시간은 단 5일. 짧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배워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여정이었다. 뽀뽀하게 기관 방문 일정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보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방문 기관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영국 전역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로 방문지는 런던 및 근교 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외 탐방지로 영국을 선정한 사실에 대해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근래 복지국가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나 발달된 시민 교육 체계를 자랑하는 독일 같은 국가가 아니라 왜 하필 영국이냐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짙은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꼽힌다. 이전 같지 않은 경제 상황과 약화된 대외적 위상으로 인해 영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인문학 위주의 성인 교육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력 개발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영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영국을 택했다. 영국의 시민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발길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 본 점은 영국 시민 사회의 활발한 활동과 톡톡 튀는 창의성이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주요 지향점과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발랄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궁리하는 수원시평생학습관에게 영국은 더 없이 매력적인 탐방지로 다가왔다.

## 왜 영국인가

영국은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자, 이미 16세기경에 민간의 자선활동 관련 법령을 제정했을 정도로 시민 참여 및 제3섹터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국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3섹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성숙한 시민 의식과 활발한 시민 참여의 전통이 자리 잡았고, 이러한 영국 사회의 특성은 평생학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영국은 일찍이 1944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전체 교육 체제 내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교육당국이 평생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관련 단체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하며,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행되기 한참 전인 1900년대 초부터 중앙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성인교육이 성장해 오고 있었던 영국의 상황에 기인한다. 즉, 영국의 평생학습은 국가 주도로 중앙집권적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보다는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교회, 학교, 노동조합 등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조직을 근간으로 평생학습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평생학습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 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다.

또한 영국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1997년 이래 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의 창의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6.4%, 수출의 4.3%, 고용의 7%를 차지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약 2배나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등 전체 경제 기여도와 파급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크다. 빈약한 제조업 기반과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해주는 일등공신이 바로 창의산업이다. 영국의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 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제3섹터, 시민 사회 영역의 실험정신과 발달한 상상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여러 분야의 우수한 선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후발 국가들이 앞다투어 영국을 찾고 있다.

## 영국에서 찾은 세 가지 열쇳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 참여’라는 화두를 마음에 품고 떠난 이번 탐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활발한 시민 참여가 현실로 구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시민 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실타래처럼 얽혀 뿌연기만 하던 머리 속 영상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 방문단이 앞으로의 지향점으로 정리한 세 가지 열쇳말은 다음과 같다.

- ☑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
- ☑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 ☑ 아래로부터의 학습(Bottom-up Learning)

각 열쇳말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

학습 협동조합은 학습자들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배움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던 우리는 다음의 기관들에서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체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유쓰리 에이(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율적, 자치적 학습 공동체로 약 27만 5천 명에 이르는 회원을 자랑한다. 회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동시에 서로 배우는 순환적 학습의 장이다. 수업 진행 및 행정 업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무보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운영 비용 역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12

### • 더 캠던 타운 셰드(The Camden Town Shed)

두 명의 퇴직자가 설립한 자조(Self-help)적 성격의 목공작업장이다. 퇴직 후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목공이라는 구체적 작업을 통해 무언가 할 일을 만들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동료로 만날 수 있다. 더 캠던 타운 셰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 소유가 아닌, 회원 모두의 작업장이다.

##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시민 참여’라는 화두를 앞에 놓고 우리는 시민참여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먼저 참여에는 ‘스스로’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탐방단의 머리 속에는 ‘스스로’ 외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학습이 단지 개별적인 나의 문제, 즉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나의 문제, 즉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부담없는 유대 관계를 원하는 시민 모두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변주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 테이크 파트(Take Part)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국 정부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 기조에 따라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다. 영국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협력했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 • 더 유(The U)

‘느슨한 유대관계(Weak Ties)’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탄생한 비영리 벤처 조직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 도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고 끈끈한 관계보다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즉 느슨한 유대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응급 및 갈등 상황이나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대치 않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느슨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더 유는 Short(짧은), Fun(재미있는), Easy Access(높은 접근성), One-off(일회성) 등의 특징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아래로부터의 학습(Bottom-up Learning)

많은 평생학습 기관들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더 잘 파악해 그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본 자료집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과정

에서 전문가나 실무자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한다.

### • 더블유이에이(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영국 최대 규모의 제3섹터 성인교육기관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 그리고 철저히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곳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지역 단위 조직 브랜치(Branch)가 있어 가능하다. 더블유이에이의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브랜치는 지역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와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의견에 기반해 교육을 기획하므로 현장과 유리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주민과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 •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

커뮤니티 러닝 챔피언(Community Learning Champion)을 우리 말로 옮기면 ‘지역 학습 옹호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웃에게 전파한다. 영국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평생학습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존재했다. 이들의 활동이 평생학습 홍보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WEA 등 네 개의 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들을 CLC로 명명하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 기타

14

이 외에도 이번 탐방을 통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실험 중인 여러 기관(또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다.

### • 스쿨 오브 에브리싱(School of Everything)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학습 중개 사이트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언론, 사회혁신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공부한다’, ‘배움은 비싼 이유가 없다’ 등 너무나 매력적인 선언문 내용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 • 더 허브(The Hub)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가 완비된 공간에 놀라운 일을 꿈꾸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과 영감을 주고 받는다. 이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소규모 벤처 기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구체화되어 간다. 더 허브는 교육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꿈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열정이 가득한 공간은 그 어떤 정형화된 학습 공간보다 더 훌륭한 배움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 어덜트 러너즈 위크(Adult Learners' Week)

‘성인 학습 주간’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어덜트 러너즈 위크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로 매년 약 10만 명이 참가한다. 우수 학습 사례에 대한 시상, 강좌 체험 기회 제공, 평생학습 관련 대정부 정책 로비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와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부스(Booth)나 화려한 홍보물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맛보기 강좌 등을 통해 잠재적 학습자들과의 소통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중시한다.

## • 나이에이스(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

성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로서 한국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유사한 활동을 펼친다. 평생학습 관련 비정부기구(NGO)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평생학습 관련 캠페인 및 행사 진행, 조사 연구, 컨설팅, 대정부 정책 활동, 관계자 네트워킹 지원, 출판, 전문정보 제공, 교육과정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 더 스쿨 오브 라이프(The School of Life)

작가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어른을 위한 인생 학교다. ‘왜 나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인간 관계가 힘든 것일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등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고민들이 바로 공부의 주제인 것이다.

## • 대안교육 운동(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

우리는 이번 탐방을 계기로 고등 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에 저항하는 영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영국의 대안교육 운동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점령하라(Occupy)’, ‘아랍의 봄(Arab Spring)’ 등 전 세계적으로 반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운동이 새롭게 고조되고,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과 인문·사회·예술 분야 교수에 대한 연구비 보조 삭감 조치에 자극받아 운동에 강한 탄력이 붙었다.

## 길 위에서 던지는 출사표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 평생학습의 지형을 좀 더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2011년 9월 문을 열었다. 민간 단체의 상대적 강점인 창의성,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민첩성을 평생 학습에 접목하고자 독립 민간 연구소인 (재)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활력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 아래 치열한 모색과 준비과정을 거쳐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누구나 학교(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참여형 학교)
- 학습동아리(자율, 자치,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장)
- 수원시민 인문대학(폭넓은 인문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갖춘 민주시민 교육)
- 와글와글 포럼(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수원 평생교육 기관들의 네트워크)
- 수원 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평생학습 이슈와 정책, 국내외 평생학습 소식을 담은 웹진)
- 도요새 책방(국내외 시민사회 관련 기록물 전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인문학 북카페 담쟁이(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쉼터)

이처럼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 시민들에게 새로운 평생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탁 운영이 계획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습관 식구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굽주려 있다.

해외 선진 사례 연구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하고 싶었다. 익숙하고 편안한 우물 안을 잠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길을 떠났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영국의 5월은 무척 쌀쌀했다. 탐방단은 초겨울 수준의 기온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싸워가며, 겹도 없이 뽁뽁하게 채워 넣은 방문 일정에 맞춰 런던 전역을 부지런히 누비고 다녔다. 그나마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풍성하게 조성된 런던의 녹지와 나즈막한 높이의 오래된 건물들이 자아내는 풍경이 탐방의 피로를 줄여줬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확보, 해외 선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향후 개최할 국제 컨퍼런스 연사 섭외 등 탐방의 목적은 나름 명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탐방만큼 부담감에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다. 하지만 길을 떠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마음 속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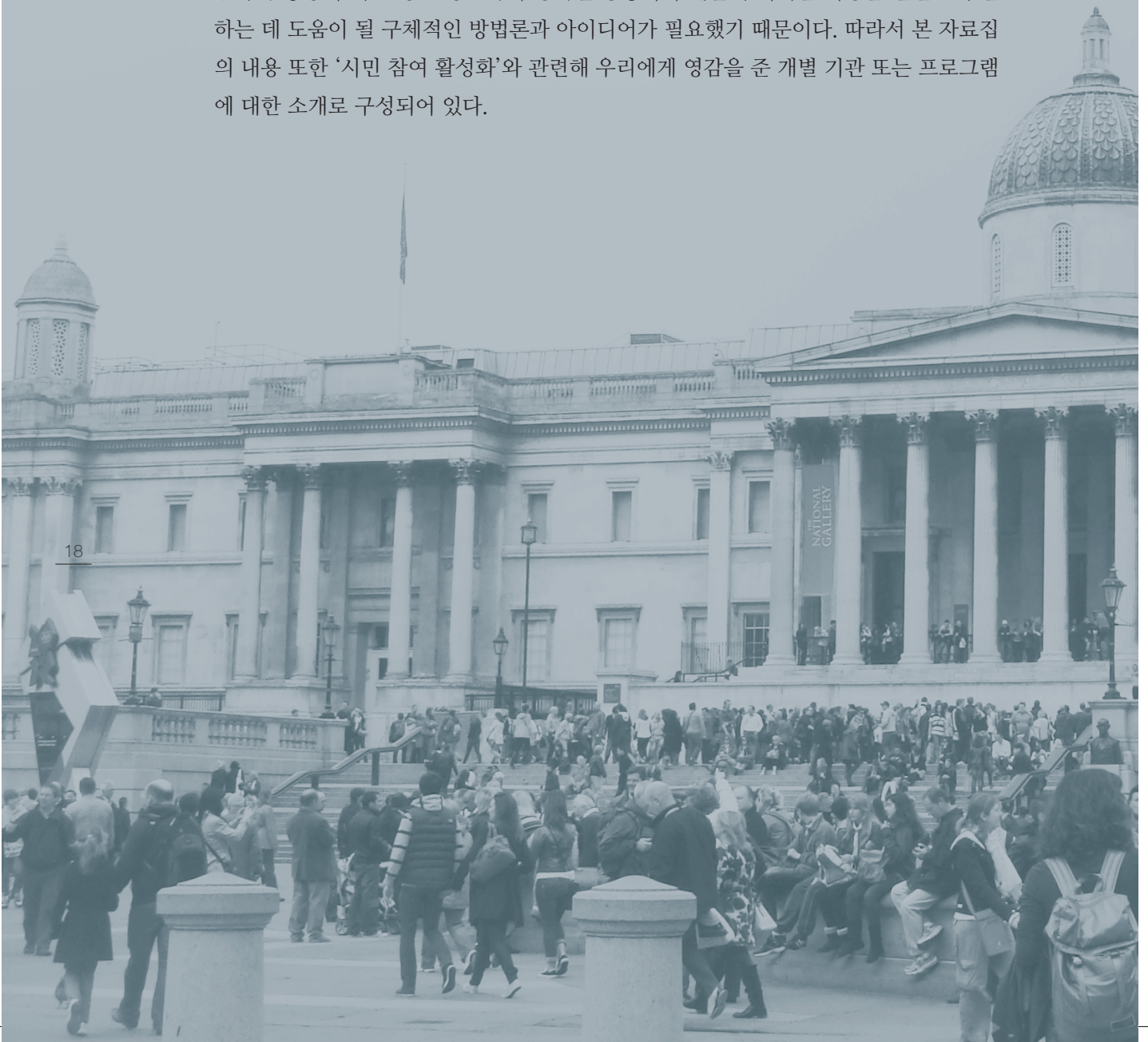
출발 전 사전 조사만으로도 각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오만이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통한 앎과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앎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긴 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한 현장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절대로 느낄 수 없었을 감동과 영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관 후 1년의 시간을 보낸 수원시평생학습관의 활동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마음이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며, 계속 실험해 나갈 것이며, 계속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영국의 친구들이 그러한 것처럼, 시민과 함께. 📖

# 이렇게 꾸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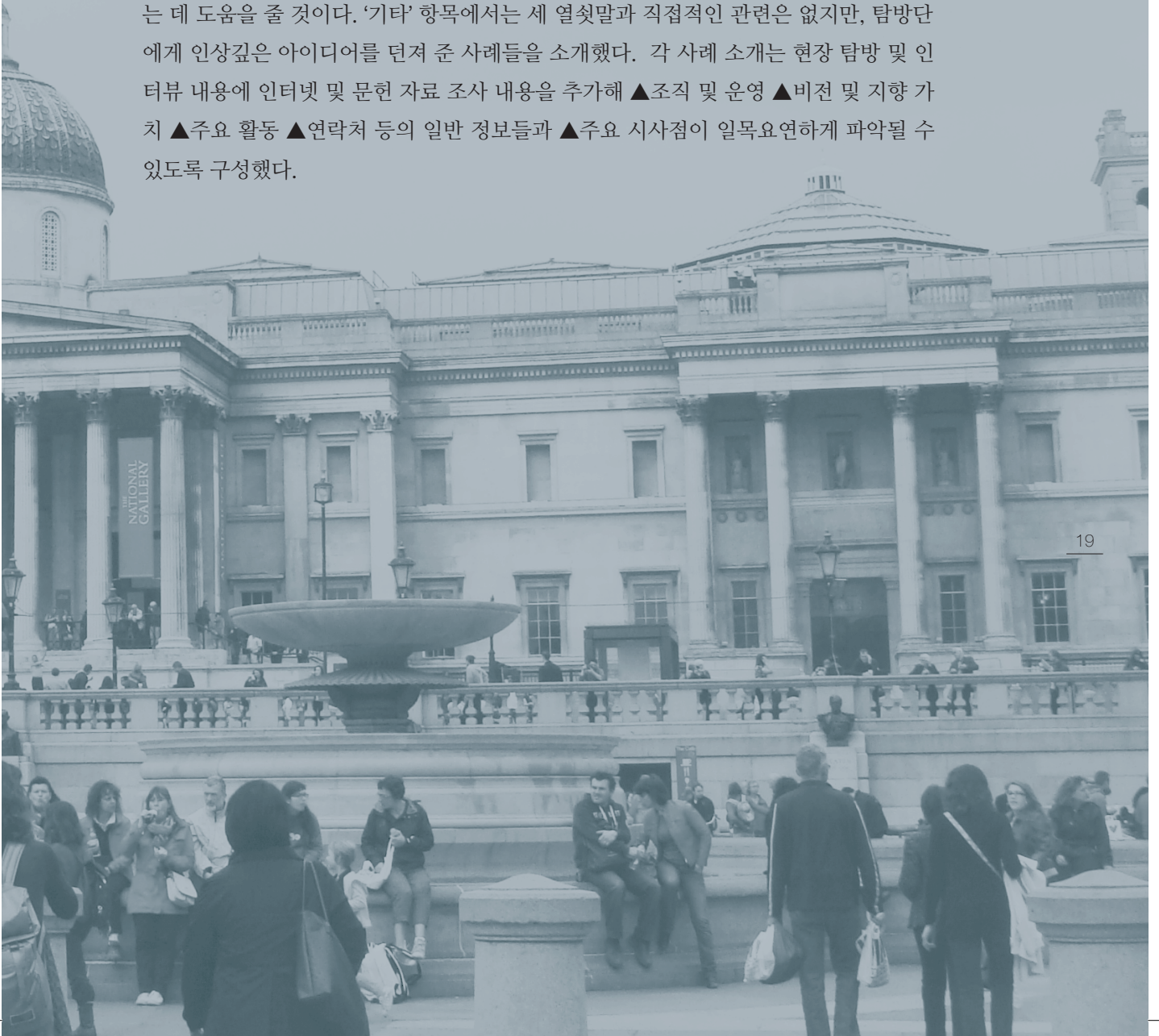
## 무엇을

이번 탐방은 영국 평생학습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민 참여 활성화’라는 학습관의 주요 지향점과 전략적 방향이 어느 정도 명료하게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론과 아이디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자료집의 내용 또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영감을 준 개별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 어떻게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 탐방을 통해 정리한 세 가지 열쇳말을 자료집의 주요 항목으로 배치했고, 각 열쇳말 별로 두 개의 사례를 소개했다. 각각의 열쇳말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준 사례들로서 독자들이 각 열쇳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타’ 항목에서는 세 열쇳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탐방단에게 인상깊은 아이디어를 던져 준 사례들을 소개했다. 각 사례 소개는 현장 탐방 및 인터뷰 내용에 인터넷 및 문헌 자료 조사 내용을 추가해 ▲조직 및 운영 ▲비전 및 지향 가치 ▲주요 활동 ▲연락처 등의 일반 정보들과 ▲주요 시사점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 학습 협동조합 Learning Co-op

학습 협동조합은 학습자들이 단순한 친목과 취미 활동을 넘어 자율, 자치, 자조의 가치에 기반해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세운 뒤,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참여하는 배움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던 우리는 다음의 기관들에서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체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유쓰리에이(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 

더 캠던 타운 셰드(The Camden Town Shed)

---

## 자율, 자치, 참여의 힘

### 유쓰리에이

###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유쓰리에이(이하 U3A)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율적, 자치적 학습 공동체다. 1982년 첫 U3A가 문을 연 이래 현재까지 약 840여 개의 지역 U3A가 영국 전역에 설립되었고, 그 회원 수만도 약 27만 5천 명에 이른다. 대단한 성장력과 지속력을 겸비한 조직이다.

U3A의 수업은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U3A는 회원 모두가 서로 가르치는 동시에 서로 배우는 순환적 학습의 장이다. 또한 자율이라는 가치를 위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재정적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수업 진행 및 행정 업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무보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운영 비용 역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영국 U3A의 3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로고

## 조직 · 운영

- 1982년 Michael Young, Peter Laslett, Eric Midwinter가 프랑스의 U3A 모델을 영국에 처음 소개하며 설립되었다. 단, 프랑스 U3A는 주로 대학 부설 시니어 평생학습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며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 위주 교육인 반면, 영국 U3A는 자율, 자치, 자조를 추구하는 학습 조직으로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 2012년 현재 영국 전역에 840개 이상의 U3A가 운영 중이며, 총 회원 수는 약 27만 명에 이른다. 지역 U3A 별 평균 회원 수는 250명이다. 회원수가 12명인 작은 조직도 있으며, 큰 조직은 2,000명에 이른다.

### 관련 조직

- 더 써드 에이지 트러스트(The Third Age Trust): 영국 내 지역 U3A를 대표하는 중앙 조직으로, 지역 U3A의 활동을 지원한다. 뉴스레터 및 책자 발행, U3A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및 참고 자료 정리, 정보 센터(Resource Center) 운영, 신규 U3A 설립 지원 및 자문, 단체 보험 가입,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펼친다. 회장 및 각 지역 이사(Trustee) 등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약 10명의 유급 직원, 자원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 IAUT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 U3A 등 전 세계 시니어 관련 평생학습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프랑스 소재 협회 조직.

### 특징

- 지역 U3A 별 자율운영: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표준화된 공통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역 U3A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방식을 정한다.
- 자발적 참여: 학습 그룹 리더 및 운영자들이 모두 무보수 자원활동가로 일한다. 운영자들은 재정관리, 학습 그룹 지원, 회원 관리, 웹사이트 관리 등 조직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 자립 재정: 외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회비로만 운영된다. 회원들은 유산을 기부하는 등 회비 외의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
- 자유로운 공간 운영: 학습 및 운영을 위해 고정된 물리적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주로 지역 내 저렴한 공공시설이나 회원들의 집을 활용한다.
- 저렴한 회비: 지역 U3A 별로 자체적으로 연회비를 결정한다. 학습 리더 및 운영자들이 모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공간 임대료도 거의 지출되지 않으므로 연회비는 저렴한 편이다. 예를 들어 Fetcham 지역 U3A의 경우 연회비는 약 15파운드(약 2만 7천 원)이다. 연회비를 내면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업에 따라 재료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습 그룹 회원들이 각출한다.

### 비전 · 지향 가치

•

- Learning Co-op: 배움은 모두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간다.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에 들어와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자율성을 위해 외부의 지원 없이 재정적 독립성을 지켜간다.
- Learning is for life, life is for learning: 우정, 동료의식, 마음의 양식, 기술 향상 등 배움이 삶에 주는 커다란 즐거움과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삶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아무런 목적이나 대가 없이, 즉 진정한 여가로서 배움을 즐기는 것이다.

- Teachers learn, learners teach: 선생과 학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누구나 배울 것이 있고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 No qualification, no curriculum: 배움에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또한 정해진 커리큘럼도 필요 없다. 서로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Fun, Well-done, Cheap: 재미있지 않으면 U3A의 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완성도 높은 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배움이 비싼 이유는 전혀 없다.

## 주요 활동

•

- 회원들의 관심과 욕구에 따라 학습 그룹(Interest Group)이라는 일종의 동아리, 소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학습을 진행한다.
- 학습 그룹에서 다루는 주제는 미술, 외국어, 음악, 역사, 걷기, 문학, 시, 정원 가꾸기, 철학, 공예, 현장 탐방, 시사, 고고학, 천문학, 컴퓨터, 댄스, 와인, 요리, 노래 부르기, 게임 등 약 300여 개에 달한다. 수업의 성격에 따라 세미나, 워크숍, 체험, 답사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 각 학습 그룹 별로 리더(Leader) 또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일반적인 강사 역할을 맡지는 않는다. U3A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배움을 지향한다.
- 수업의 개설 및 폐강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회원들의 수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자연스럽게 폐강된다. 또한 수업 시작일이나 지속 기간 등도 학습 그룹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를 위해 매주 혹은 매월 특강을 준비하거나, 맛보기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 수업 외에도 U3A 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교 활동 및 상호 부조 활동이 이루어진다. U3A 조직 차원에서의 자원 및 자선 활동도 고려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 등으로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 각 지역 U3A 마다 자율적으로 활동과 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활동 내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u3a.org.uk](http://www.u3a.org.uk)  
영국 내 지역 U3A들을 대표하는 중앙 조직인 더 써드 에이지 트러스트(The Third Age Trust)의 웹사이트이며, 지역 U3A들은 독립된 웹사이트([www.u3a.org.uk/local-u3a-website-list.html](http://www.u3a.org.uk/local-u3a-website-list.html)참조)를 운영하고 있다.
- 주소(National Office): Old Municipal Buildings, 19 East Street, Bromley, Kent, BR1 1QE
- 전화: +44 (0)20 8466 6139
- 이메일: [national.office@u3a.org.uk](mailto:national.office@u3a.org.uk)([www.u3a.org.uk/contact-us/12/1-national-office.html](http://www.u3a.org.uk/contact-us/12/1-national-office.html)으로도 문의 가능)
- 탐방단 컨택 포인트: Ian Funnell(Representative on IAUTA, 전 Fetcham U3A 회장) / [funnellian@hotmail.com](mailto:funnellian@hotmail.com) / +44 (0)1372 374236(Office)

모두 함께 참여해  
수업을 만들어 가는  
U3A의 회원들



## 그냥 앉아있기만 해선 안 된다

27

“U3A는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서로 배우고 동시에 서로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입니다. 수업에 들어와 그냥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죠.”

Pam Jones(U3A South East 지역 이사)와의 인터뷰 중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학원,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수업 목록을 이리저리 살핀 후, 적당한 수업을 찾아 등록하고, 수업이 있는 날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 교육도 또 다른 이름의 소비 행위쯤으로 여겼다고 할까. 하지만 U3A에서 만난, 스스로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는 학습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주었다.

U3A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유니버시티(University)라는 이름때문이었는지,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원-웨이(One-way)방식 말이다. 1982년 U3A가 영국에 전해진 뒤에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교사와 학생 간 구분을 없애고 수업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투-웨이(Two-way)방식이다.

U3A에서는 교사라는 말 대신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는 말을 쓴다. 회원들 중 특정 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회원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수업의 진행을 돕는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참여와 서로 간 지식의 나눔이 수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가 혼자 모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에 들어와 잠자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만일, 특정 과목을 배우고 싶는데 U3A에 관련된 학습 그룹

U3A의 수업과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 공간:  
교회 강당(좌)과 커뮤니티 센터



(Interest Group)이 없거나 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회원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전문 학원이나 강사가 아닌, 배움에 대한 열정과 그 열정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저 한 주제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이 새로운 학습 그룹을 만들고,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회원들의 도전에 도움을 주고자 U3A의 중앙 조직인 더 써드 에이지 트러스트(The Third Age Trust)는 정보 센터(Resource Center)를 설치해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U3A가 이렇게 회원 모두의 참여와 주인 의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자율적, 자립적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U3A는 외부의 어떠한 재정 지원도 거부하고,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솔깃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원에 따르는 요구 조건들로 인해 제한될 운영 상의 자유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U3A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이다. 코디네이터들의 수업 진행, 조직 운영에 따르는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U3A의 업무는 회원들이 무보수로 직접 처리한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들은 보통 독립된 공간 마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U3A

U3A 회원들은 손수 준비한 소개판과 발표자료를 갖고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학습 그룹 활동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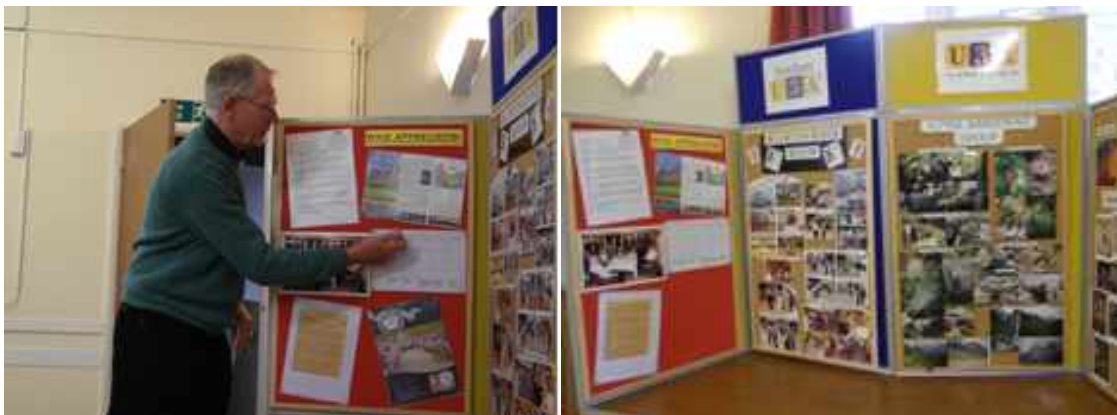


는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주로 회원들의 집이나 지역 사회 내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교회 등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U3A 방문을 통해 가장 크게 감명 받은 점은 그들의 눈빛과 활동에서 배어 나오는 열정과 활기였다. 항상 어떤 의무감이거나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안고 무언가를 배워왔던 우리에게, 배움 자체에 대한 열정과 환희, 지식의 공유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에는 무언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이 있었다.

탐방을 떠나기 전 방문을 해도 좋겠냐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U3A 관계자로부터 곧바로 미팅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친절한 답장을 받았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탐방단을 맞이하는 따뜻한 눈길과 우리가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세세한 점까지 신경 쓴 사전 준비에 감명받았다. 귀찮았을 법도 한데, U3A의 회원들은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스스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대접받는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열정에 감염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 내는 힘 아닐까. 역지로 시켜서 하는 일에는 언제나 피로와 매너리즘이 따른다. 또



한 무언가 받기만 하는 활동에는 언제나 불만과 불편함이 따른다.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습을 행할 때만 진정한 배움에 대한 환희, 함께 배우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현재 영국 전역에 약 840여 개의 U3A가 설립되어 있고, 회원은 약 27만 5천 명에 이른다. 요즘에는 2주에 1개 꼴로 새로운 U3A가 생겨날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U3A 회원 한 명은 자랑스럽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 보다 성장률이 높은 조직은 U3A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U3A의 성장에는 전 세계적 현상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시니어의 수도 그 배경으로 작용했겠지만, U3A의 빠른 성장과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U3A의 진정한 힘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배움이 주는 환희,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갖는 배움에 대한 열정, 외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한 재정적 독립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로부터 온다. 🏠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고  
회원들의 집이나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U3A의 관행 덕분에  
아름다운 영국의 가정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Directions 2015**

**Tired? Emotions in Action**  
Web & Master for Life

**By the Way**

**Space Mission: Europe**

**Expertise Service Advice**

**Bank, Bank, Bank!**

**Find Your Asian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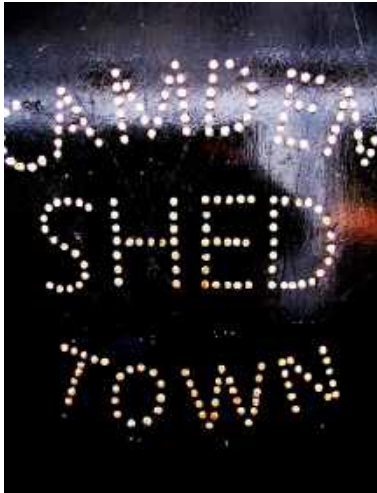
## 목공소에서 꿈꾸는 공동체

### 더 캠던 타운 셰드

### The Camden Town Shed

더 캠던 타운 셰드는 2명의 퇴직 시니어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목공 작업장이다. 퇴직 후 이렇다 할 사회적 역할도, 삶의 목적도 상실한 채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퇴직 남성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목공이라는 구체적 작업을 통해 무언가 할 일을 만들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 더 캠던 타운 셰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 소유가 아닌, 회원 모두의 작업장이다.

더 캠던 타운 셰드는 호주의 맨스 셰드 무브먼트(Men's Shed Movement, [www.mensshed.au](http://www.mensshed.au))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시작되었다. 10년 간 700여 개의 작업장이 생길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호주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매우 큰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 캠던 타운 셰드의 명패(좌)와 더 캠던 타운 셰드가 입주해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 조직 · 운영

•

- 호주의 맨스 셰드 무브먼트(Men's Shed Movement)에서 영감을 받아 2011년 5월에 설립.
- 퇴직 남성들에 의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자조(Self-help)조직으로서,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클럽 형태의 목공 작업장으로는 영국 내에서 최초라 할 수 있다.
- 회장 외에 공식적인 직책과 역할 구분은 따로 없다. 회원 모두가 주인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주요 인물은 Mike Jenn(회장, 공동 설립자), Dr. Robert MacGobbon(공동설립자), Terry Lyon(은퇴한 전문 목수).

34

### 회원 관련

- 회원 수: 현재 11명. 접근성이 떨어지는 작업장의 위치, 목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성적 성향 등으로 인해 아직 회원 수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30~40명을 목표로 회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 회원 자격: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들, 즉 더 이상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남성 회원들만의 공간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수요일에는

여성 회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 회원 수칙: 이 곳에서는 회원들 간의 관계를 가족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나 도난 사건 등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공식적인 규칙 아래 처벌함으로써 해결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두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따라서 특별한 운영상의 규칙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다. 단,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연장 사용법을 미리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한 가지 규칙만이 존재한다.
- 회원 모집 홍보: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뉴스를 통해 소개되도록 한다. 지역 이벤트에 참여하고 비회원들의 작업장 일일 사용도 권장한다. 일일 강좌, 맛보기 강좌를 개설하고, 호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명함 크기의 홍보 자료도 제작해 길거리에서 배포하고 있다.

### 작업장 운영

- 개방 시간: 화요일(남성만), 수요일(남녀 모두) 10:00~16:00
- 임대료: 1년 임대료는 약 3,600파운드(약 650만 원)이다. 단,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 공간: 지역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2층 공간을 임대해 작업장을 마련했다. 작업대, 연장보관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발코니 쪽에는 먼지 발생이 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 작업 공간이, 목공소 내부 한 켠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 재정 관련

- 초기 재정 마련: 설립 및 초기 운영 비용 마련을 위해 여러 단체 및 개인들과 접촉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이 매우 설득력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재정 물품(연장, 자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초기 지원금의 약 2/3를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이끌어냈다. UnLtd, the Funding Network, the Co-operative Charitable Foundation's Community Fund, The Wakeham Trust 등 사회적기업 지원단체와 지역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고, 지역 건설회사는 자재를 지원했다.
- 향후 계획: 재정 자립이 가능하도록 상업 목공소들이 상업성이 떨어져 외면하는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비회원을 대상으로 작업장 일일 사용비를 받고, 목공 강좌를 운

영하는 등 다양한 수입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품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없으므로, 재료비의 2배 정도만 받고 저렴하게 판매한다.

- 회비 수입: 1년에 약 2파운드(약 3,600원)로 무료나 마찬가지이다. 혹시라도 회비가 부담스러워 참여를 망설이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수입 항목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
- 자재 및 연장 구입 비용: 거의 모든 작업이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이루어진다. 작업장 설립 시 지역 신문에 게재한 자재 및 연장 기부 요청 광고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 주로 재활용과 기부를 통해 자재와 연장을 마련하므로 관련 비용 지출은 크지 않다.

### 비전 · 지향 가치

•

- 더 캠던 타운 세드는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 자조(Self-help): 특정 개인의 것도, 특정 단체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작업장’을 지향한다.
- 자치(Self-governing): 재정 독립을 통해 자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 자율(Self-regulating):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보다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윤리의식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조직을 운영해나간다.

### 주요 활동

•

-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동을 통해 목공품을 제작한다.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사교 활동을 통해 퇴직 후 남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목공품 제작 및 판매

- 개인적 목적: CD 보관함, 신발 보관함, 정원관리용 연장 등의 물품을 제작한다.
- 공익 목적: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파종기,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에 쓰일 활쏘기 과녁 등을 제작한다. 소수민족 교육 관련 단체에 남은 연장을 수리해 보내거나 신발을 수선해주기도 하고, 지역 정원 가꾸기에 동참하기도 한다.
- 판매 목적: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폐환자를 위한 장난감 등 상업 목공소들이 적은 이윤 탓에 제작을 꺼리는 제품들을 제작해 판매한다.

## 기타 활동

-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한 편에 마련된 차 마시는 공간일 정도로 회원들 간의 사교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 비회원 대상 일일 목공 강좌, 맛보기 강좌 등을 진행해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활동을 펼친다.
- 영국 내 맨스 셰드 무브먼트(Men's Shed Movement, [www.menssheds.org.uk](http://www.menssheds.org.uk)) 네트워킹 및 활성화에 동참한다.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camdentownshed.org](http://www.camdentownshed.org)
- 주소: The Maiden Lane Community Centre, 156 St Paul's Crescent, NW1 9XZ
- 이메일: [mike@camdentownshed.org](mailto:mike@camdentownshed.org)
- 탐방단 컨택 포인트: Mike Jenn(회장) / 연락처 상동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 ② 더 캠던 타운 셰드



작업장 모습.  
발코니에는 먼지발생이 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스스로’가 가장 강력하다

“더 캠턴 타운 세드는 나 개인의 공간도, 특정 기관이 소유한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회원 모두의 공간입니다. 지역 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고(Self-initiated), 회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서로 도와가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Self-help)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가장 지속력 있고, 강력한 조직입니다.”

Mike Jenn 회장과와의 인터뷰 중

더 캠턴 타운 세드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크 쟈(Mike Jenn)은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2층 공간을 임대해 쓰고 있고, 고작 10명이 조금 넘는 회원을 가진 비영리조직의 회장이니 그의 겸손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직에게 고층 빌딩이 생긴다 해도,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선다 해도 그의 목이 뻗뻗해질 것 같진 않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마이크 쟈 회장.  
탐방단에게 그동안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진을 통해  
하나하나 소개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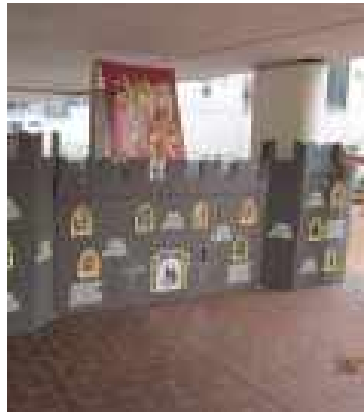


마이크는 더 캠턴 타운 세드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원들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다. 회장이라는 직책은 그의 역할을 말해 줄 뿐 권위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다. 그는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더 캠턴 타운 세드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일 뿐이다. 동시에, 다른 회원들이 모두 그렇듯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로 도우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이기도 하다.

더 캠턴 타운 세드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선 작업장, 연장, 자재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마이크는 단순한 호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사업 계획이 담긴 기획서를 들고 여러 곳의 문을 두드린 끝에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단체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사업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재정과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마이크는 앞으로 목공소를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후원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후원처의 요구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회원들의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회원들은 목공소에서 만든 제품의 판매를 위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회원이 아닌 일일 사용자에게 소정의 작업장 사용료

자폐환자를 위한 장난감,  
동네 이벤트에서 쓰인  
활쏘기 과녁 등 작업장에서  
생산된 목공품들



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이크에 따르면 더 캠프 타운 셰드와 유사한 컨셉의 목공 작업장이 에이지 유케이(Age UK)라는 영국 최대 시니어 관련 비영리 단체의 주도 아래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니어를 위한 사회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마이크는 양자 사이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에이지 유케이의 사업은 특정 단체가 기획력, 자금 동원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만든 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더 캠프 타운 셰드의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욕구, 필요에 맞추어 천천히 사업을 진행해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다. 즉 전자의 작업장은 ‘에이지 유케이의 것’이지만, 후자의 작업장은 ‘회원들의 것’이다. 마이크는 ‘우리의 목공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립적·자조적 조직만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고 그는 믿는다.

회원들이 따라야 할 규칙은 없느냐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그는 규칙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연장 사용 전에는 반드시 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규칙뿐이다. 마이크는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모이면 크던 작던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회원 중에는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다. 심지어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다.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간의 차이점이나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일까. 더 캠던 타운 세드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작업장 한 쪽에 마련되어 있는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다. 목공이라는 작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작업장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제일 어렵단다. 무뎠 웃음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 안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은퇴 남성들이다. 한 두 번의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는 회원 간의 관계가 가족 관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더 캠던 타운 세드 역시 그럴 수 있단다. 하지만 소통과 웃음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이겨낼 내성을 기를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조직이 바로 이러한 자조(Self-help) 조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실무자의 경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눈에 보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



는 하드웨어 만들기에만 치중하기 쉽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성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람 간의 관계, 즉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이크에게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찾는 시니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기본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당연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쉽게 간과하는 것들 말이다. 발산의 에너지가 강한 젊은이들이 보여주기와 꾸미기에 충실한 반면, 수렴의 에너지가 강한 시니어들은 오랜 경험을 거르고 또 걸러야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다고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들은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안다. 소위 ‘풍요의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는 헨 것 보다는 새 것을 선호한다. 물건을 대물림해 사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의식이 희박하다. 마이크는 더 캄턴 타운 세드를 설립하면서 지역 신문에 자재 및 연장을 기부해달라는 광고를 냈다. 예상과는 달리 미망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사용하던 연장이 자식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 것을 아쉬워하던 차에 좋은 취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마이크는 오래된 연장이 요즘 생산되는 현대식 연장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연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이웃들로부터 기부 받은  
연장과 재활용 자재들이  
대부분이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연장이나 가구 중에는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오래된 것들이 많다.



이벤트나 강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버려진 자재들을 여기저기서 잘도 모아온다. 더 캠던 타운 세드에서 사용하는 자재 중에는 재활용 자재들이 많다.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 환경 보호의 효과도 있지만, 버려지고 오래된 것들을 쓸모 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재미와 보람도 상당하다.

사회적기업가로 일했던 마이크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호주에 사는 아들을 통해 맨스 세드 무브먼트를 알게 되었다. 은퇴 후 할 일을 고민하던 그에게 퇴직 남성들을 위한 이 운동은 강한 흥미를 끌었다. 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다름 아닌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문제라 그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경험이 용기를 내게 해주었다. 더 캠던 타운 세드가 회원 모두의 작업장이긴 하지만, 마이크라는 용기 있는 선구자의 존재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은퇴 남성의 사회 부적응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이미 시작된 한국 사회에겐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더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될 지 모른다. 놀라운 속도의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견뎌온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회사의 테두리를 벗어난 관계 맺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미션'이었을지도 모른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집 안에서 TV만 보는 남성들이 많다는 사실도,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라는 사실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

나라마다 정도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퇴 남성의 사회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듯 하다. 호주에서 성공한 운동을 영국의 마이크가 이어 받아 동료들과 함께 은퇴 후 멋진 '제3의 인생'을 시작했듯이, 한국에서도 퇴직 남성들을 따뜻한 공동체로 안내할 용감한 시니어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

연장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연장 정리판이  
눈길을 끌었다.  
정리 전(좌)과 정리 후의 모습





---

#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

‘시민 참여’라는 화두를 앞에 놓고 우리는 시민참여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먼저 참여에는 ‘스스로’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탐방단의 머리 속에는 ‘스스로’ 외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학습이 단지 개별적인 나의 문제, 즉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나의 문제, 즉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부담 없는 유대 관계를 원하는 시민 모두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변주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테이크 파트(Take Part)

- 

더 유(The U)

---

## ‘빅 소사이어티’를 향해

### 테이크 파트

### Take Part

테이크 파트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국 정부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정책 기조에 따라 2008~2011년에 진행된 프로젝트다. 영국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협력했다.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참여자 중심, 경험·성찰·실천 중심, 조력·협력·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강사의 역할 강조로 정리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빅 소사



이어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로서의 시민이 필요하다. 테이크 파트는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었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 공동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영향력 행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테이크 파트는 2004~2005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ALAC (Active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테이크 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 권력의 지역사회 이양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과 성과를 진일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조직 · 운영

•

- 프로그램 시행 기간: 2008~2011년
- 재정: 영국 중앙 정부 부처(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 프로그램 전체 기획 및 운영: 테이크 파트 자문 위원회(Take Part Advisory Group) 및 테이크

파트 네트워크(Take Part Network)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협력과 자문을 받아 커뮤니티 개발 재단(The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에서 수행했다.

- 프로그램 실행 단위: 19개 지역에서 테이크 파트 패스파인더(Take Part Pathfinder)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National Support Program)이라는 중앙 단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 비전 · 지향 가치

•

### 핵심가치

-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참여(Participation)
- 다양성 및 평등(Diversity & Equality)
- 협동(Co-operation)

### 학습의 주요 원칙

-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
- 경험에 기반(Experiential)
- 실천적 및 성찰적(Active & Reflective)
- 지역 기반(Community-based)

## 주요 활동

•

테이크 파트 패스파인더(Take Part Pathfinder)

- 영국 내 약 19개 지역, 특히 주민들의 지역 참여가 저조한 소외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 별로 테이크 파트 패스파인더라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도 조직’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 단체, 교육기관 등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했다. 이 협의체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다.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공공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법(Take Part Approach)이라는 고유한 방법론에 기반해 개발되었다.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법(Take Part Approach)

- 참여자 중심: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조직의 성공 사례를 쫓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즉 지역 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참가자들 스스로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 방법 및 실행 계획을 찾아가게 한다.
- 경험, 성찰, 실천 중심: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을 추구하며, 자기 성찰에 기반한 배움과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법을 중시한다.
- 조력, 협력,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강사: 참여자 중심, 경험 중심 등의 성격을 지닌 학습이 가능하려면 강사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 촉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다.

###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National Support Program)

- 지역 별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제도이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표준화된 방법론 등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 개발해 공유한다.
  - 약 800명에 이르는 테이크 파트 강사를 양성한다. WEA(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NAVCA(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ary and Community Action)라는 기관에서 강사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 테이크 파트 패스파인더가 활동하지 않는 9개의 지역(Regional Take Part Champion)을

지정해 새롭게 시작하는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친다.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멘토링(Mentoring)을 제공한다.

### 테이크 파트 운동(Take Part Movement)

-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은 2011년 3월로 종결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테이크 파트 운동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법(Take Part Approach)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녹아 지속되고 있다.
  - 지역 별로 새로운 후원이 이어져 독립적인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런던 시빅 포럼(London Civic Forum)이라는 시민참여 관련 비영리단체는 OCS 트랜지션 기금(OCS Transition Fund)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2011~2012년에도 계속해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www.londoncivicforum.org.uk](http://www.londoncivicforum.org.uk) 또는 [www.shapeyourcity.org.uk](http://www.shapeyourcity.org.uk) 참조)
  - 트레인 더 테이크 파트 트레이너스(Train the Take Part Trainers)라는 테이크 파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테이크 파트 네트워크(Take Part Network)라는 오픈 멤버십 조직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www.takepart.org](http://www.takepart.org) 또는 [www.takepart.info/index.php](http://www.takepart.info/index.php) 참조)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takepart.org](http://www.takepart.org)
- 주소: 99 Wickersley Road, Rotherham, S60 3PU
- 전화: +44 (0)1709 360886
- 이메일: [info@takepart.org](mailto:info@takepart.org)
- 탐방단 컨택 포인트: Ted Hartley(Secretary for Take Part Network) / 연락처 상동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 ‘나’ 아닌 ‘우리’를 보라

영국은 오랜 시민 참여와 제3섹터의 역사를 지닌 나라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3섹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2010년 5월 출범한 캐머런(David William Donald Cameron) 정권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 ‘큰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빅 소사이어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권력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로 대대적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과도하게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나 정부와 제3섹터의 ‘협치(協治)’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가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경우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살펴 볼 여지가 있다.

빅 소사이어티 구현을 위해 영국 정부는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들의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다. 빅 소사이어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주체로서의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량 향상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테이크 파트이다.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이크 파트의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나의 문제, 즉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든지,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즉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하며,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교육이라 해서 반드시 개인적 이해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국가의 행정, 법률 등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내 인생을 알게 모르게, 때로는 도드라지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마못 리뷰(Marmot Review)의 보고서 「Fair Society, Healthy Lives」에 따르면 개인의 적극적인 사회 문제 참여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교육이 존재한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취미

과정, 삶의 의미를 곱씹어보기 위한 인문학 과정,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외국어 과정 등 그 수를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 많은 교육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나’의 능력과 가치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 물론 이런 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세상은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에, 진정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나’에게로 집중된 시각을 ‘우리’라는 시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뿐이다.

테이크 파트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설명 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리사 버치(Lisa Birch)라는 한 여성의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 참여기를 통해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자.

리사는 소위 ‘백수’였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옥스퍼드 지역의 한 평생학습 대학에서 구직자 대상 사회간병 수업을 이수했다. 이 수업을 통해 지역 내 자선 단체에서 자원 활동도 시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테이크 파트 홈페이지



작하게 되었고, 헬핑 인 스쿨(Helping in School)이라는 수업도 계속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셰어링 스킬(Sharing Skills)수업을 알게 된다.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학부모와 교사 간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 지역은 영국 옥스퍼드 지역 내에서 소외된 곳 중 하나였다. 수업을 듣던 리사와 동료 몇 명이 주축이 되어 학부모의 목소리(Parent's Voice)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리사의 의도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즉 서로 다른 특성과 계층의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부모라는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녀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좀 더 나은 학교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 참여 이후 현재 리사는 학교 운영 위원이자 지역 교육 협의체 및 학부모 협의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학에서 사회과학 공부도 시작했다.

리사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사회적’으로 풀어가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작은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즉

지역 컨퍼런스 행사장 벽면에 소개된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 리사의 사례도 만날 수 있었다 (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테이크 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2004~2005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ALAC(Active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이다. 정부 권력의 지역사회 이양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이전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은 2011년 3월에 종결되었으나, 지역 별로는 별도의 후원처를 확보해 테이크 파트의 방법론을 적용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테이크 파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 모임도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크 파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과거에 진행되었던 유사 프로젝트를 일일이 찾는 일도 귀찮고, 프로젝트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싶은 욕심에 과거를 살짝 물어버리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싶기도 하고 한시바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에, 축적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마음속에 고이 묻어버리기도 한다.

테이크 파트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값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사람과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정말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축적과 공유, 확산의 노력이 ‘빅 소사이어티’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동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

## 느슨해야 참여한다

### 더 유

### The U

더 유는 ‘느슨한 유대관계’(Weak Ties)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고자 탄생한 비영리 벤처 조직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 혁신 단체인 영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과 네스타(Nesta)가 함께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빠른 변화와 바쁜 생활이 특징인 현대 도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끈끈한 관계보다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느슨한 유대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응급 및 갈등 상황이나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대치 않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느슨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더 유는 Short(짧은), Fun(재미있는), Easy Access(높은 접근성), One-off(일회성)등의 특징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기술들, 예를 들면 각종 응급 상황 대처법, 이웃과 말문을 트는 방법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히면서, 이웃과의 유대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개별적인 내가 아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나에게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은 소통의 경험은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문제로 가득찬 현대 사회에서 좀 더 탄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건강한 씨앗이 된다.

앞서 소개한 테이크 파트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시민참여를 바라보고 있는 더 유의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를 재정의하고, 시민참여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 참가자들은 낯선 이웃과 조금씩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 조직 · 운영

- 영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혁신 단체인 영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의 벤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또 다른 사회혁신 단체인 네스타(Nest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다. 2010년 10월 기획을 시작해 2011년 6월 첫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현재 18개월 간의 파일럿(Pilot, 시험)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결과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험 기간 종료 후 별도 단체로 독립할 계획이다.
- 조직 구성: 5명의 직원과 교육을 진행하는 자원활동가(Host)들로 구성되어 있다.
- 활동 지역: 현재 런던 외곽의 Sutton과 Northumberland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그 활동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독립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 단체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비전 · 지향 가치

- 너무나도 바쁜 일상, 잦은 이사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지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이상으로 삼는 안정적이고 끈끈한 지역 공동체는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즉 느슨한 유대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 더 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그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말문을 트기를,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통해 이웃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시작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나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

## 주요 활동



### 지역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학습경험 제공

- 더 유의 교육은 Short(짧은), Fun(재미있는), Easy Access(높은 접근성), One-off(일회성)의 특성을 지닌다.
- 각 수업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책상 앞에서 뭔가를 읽거나 쓰기보다는 실제 활동이나 게임, 비디오 시청 등을 통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 고정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쇼핑몰 내 빈 공간에 팝업(Pop-up) 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유의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심리적, 물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한 번 교육에 참여한 이들 중 약 30%가 다시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편이다.

### 교육 주제

-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너무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라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과 지식을 교육한다. 예를 들면 ‘이웃과 말문 트는 법(How To Talk To People)’이라는 주제 아래 시끄러운 이웃에 대처하는 법, 길을 막고 무리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속내 이해하기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 화재, 뇌졸중,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 대처법을 교육한다. 특히 이런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그 외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기, 의학 상식 배우기 등의 주제도 다룬다.

### 교육 진행 및 개발

- 내 이웃에 의한 교육: 전문강사가 아닌 호스트(Host, 손님을 초대한 주인, 주최자라는 의미)라 불리는 자원활동가들이 하루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조력, 협력, 촉진자(Facilitator)로 교육

에 참여한다. 학습자들은 손님(Guest)이라 불린다. 학생과 선생의 구분이 없고, 전문 지식 함양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 약 10%정도가 자원활동가로 다시 교육에 참여한다.

- 전문 기관에 의한 교육 과정 개발: 교육 진행은 자원활동가들이 맡지만, 교육 내용은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 기관이 개발한다. 즉, 더 유의 교육 과정은 합리적인 이론과 경험적으로 입증된 방법론에 기반해 구성된 것이다.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 기관으로는 The British Red Cross(응급 상황 대처 교육), Sustainable Homes(에너지, 돈 절약 교육), The Royal College of GPs(의학 상식 교육), Dfuse(갈등 관리 교육) 등이 있다.

## 연락처

•

- 홈페이지: [the-u.org.uk](http://the-u.org.uk)
- 주소: 18 Victoria Park Square, Bethnal Green, London, E2 9PF
- 전화: +44 (0)800 2540154
- 이메일: [hello@the-u.org.uk](mailto:hello@the-u.org.uk)
- 탐방단 컨택 포인트: Radhika Bynon (Director) / [radhika.bynon@youngfoundation.org](mailto:radhika.bynon@youngfoundation.org), +44 (0)20 8709 9032(Office)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지시가  
아닌 참가자 간의 의견교환과  
참여를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



## ‘이웃과 말문 트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정다운 이웃, 서로 돕는 이웃,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웃은 이젠 옛말이다.

장면 하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함께 타기라도 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 광고판만 뚫어져라 응시한다. 말이라도 걸어오면 어떡하나 싶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열중 모드로 전환한다. 때마침 으스스한 밤이기라도 하면 정체도 모르는 이웃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무섭기 짝이 없다.

장면 둘. 우리 옆 집은 가내 목공소라도 차린 걸까? 가수 지망생이라도 사는 걸까? 옆집 애들은 하나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무개념 인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꼭 붙어 살건만,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이웃이 아니라 웬수라 부르고 싶다.

장면 셋. 교복을 폼 나게 차려 입은 고딩들. 아니 중딩인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신다. 앗, 그 중 한 녀석은 같은 패거리가 아닌가 보다. 돈을 뺏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음, 그런데 정말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일일까?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 웬만한 성인 조폭 보다 더 무섭다. 저 아이들의 표정을 보라. 감히 범접

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긴다. 괜히 애들 눈에 띄지나 말고 조용히 가던 길이나 가자. 내가 배트맨 의상으로 짤 갈아입고 우리 동네 범죄를 다 소탕할 수도 없는 일. 동네 경찰은 뭐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하겠지. 나는 내 일이나 잘 하면 된다.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요즘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다.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리지만 말고 직접 나서란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란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결하란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변한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듣기엔 그럴싸한 것 같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

더 유는 현재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 중이다. 더 유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즉 시빅 코어(Civic Core, 참여핵심)라고 부를 수 있는 시민의 비율은 어느 지역 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부르짖어 봤자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기 보다는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강도만 더 높아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라고 이성적, 당위적으로는 동의하

64 더 유의 사무실이 위치한  
영파운데이션 건물.  
집처럼 아늑한 건물 앞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지만, 실제로 참여하기는 꺼린다. 끈끈한 이웃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간섭,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 떠맡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긴 통근 시간, 가족 대소사 만으로도 현대인은 충분히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의 얼굴을 아는 정도, 이웃의 이름을 아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라고 한다. 이웃들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들을 모아 비공식 모임을 조직하는 수준의 관계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많은 시민들이 동네 상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문제점이나 중소 자영업자 살리기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의 인간적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 말이다. 지역 사회 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즉 내 이웃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면 주인이 나

발랄하고 활기 넘치는  
더 유의 홍보 활동

## The U Sessions are learner-led



를 알아본다. 서로 눈인사를 한다. 조금 친해진 주인과는 가끔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한다. 어제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는 없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친구 사이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끈끈한 연대, 긴밀한 공동체가 아니다.

더 유가 꿈꾸는 공동체는 느슨한 유대관계(Weak Ties)가 활발히 작동하는 사회다. 『느슨한 유대관계의 강점(The Strength of Weak Ties)』의 저자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에 따르면 느슨한 유대관계란 이웃과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 동네 단골 노점상 주인에게 매일 아침 신문을 사는 정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느슨한 유대관계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집단의 가치나 규율에 따르거나, 집단의 행동규범을 위반했을 때 지탄을 받는 등 강한 연대에 필요한 요구들을 따라야 하는 부담 없이 사람이 형성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연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끈끈한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가 ‘옳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대의 공동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하지만 강한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는 편안함,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을 펼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들과 변화를 배척하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는 강한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가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반면 느슨한 유대 관계는 현대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는 기대치 않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현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통로로 작동해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네트워크 소외 계층의 양산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느슨한 유대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더 유는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실험 중이다. 더 유는 짧으면서도 재미있고, 참여의 문턱이 낮은 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말문을 트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된 소통이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에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더 유가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은 시민 참여 활성화의 노력이나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느슨한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가끔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우선 순위가 높고,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커다란 문제들에 몰두한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은 소홀히 대할 때가 있다.

자원봉사, 주민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주민 자치 위원회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지역 참여 활동의 경우 그 목적이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거나 참여 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웃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웃과 눈인사 나누기, 이웃과 말문 트기와 같은 소소한 활동들은 교육을 통해 배우기도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천하기에 더욱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더 유의 교육 프로그램이 쉽고,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여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작고 사소한 것들이니까 말이다. 🏠



---

# 아래로부터의 학습 Bottom-up Learning

많은 평생학습 기관들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더 잘 파악해 그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나 실무자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한다.

- 

더블유이에이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

---

## 풀뿌리가 만드는 평생학습

### 더블유이에이

###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

더블유이에이(이하 WEA)는 영국 최대 규모의 제3섹터 성인교육기관이다. 100여 년 전 민주주의 운동 정신에 입각해 설립되었고 여전히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 철저히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곳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지역 단위 조직 브랜치(Branch)가 있어 가능하다. WEA의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브랜치는 지역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와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의견에 기반해 교육을 기획하므로 현장과 유리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주민과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물론 자원활동가 관리가 쉽지만은 않지만,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해 설립된 WEA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장 중요한 전통

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나눔과 협동에 기초한 학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척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또 한 가지 WE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강력한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 WEA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시행하기 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단체 회원이나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WEA 런던지역 사무실 모습.  
파트너십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외근 중인 직원이 많아 한산했다. (좌 하단)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진행되지만,  
사무실 내부에도 교육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우 하단)



## 조직 · 운영



- 설립: 1903년 설립. 민주주의 운동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조직으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옴.
- 등록 회원 수: 4만 명 이상(연간 학습자 수는 8만 명 이상)
- 강사(Tutor) 수: 2,000명 이상(시간제 고용)
- 직원 수: 300여 명
- 자원활동가(Volunteer) 수: 1,000명 이상
- 파트너 기관: 수백여 개에 달하며 지역 단체 및 자선 단체 등 제3섹터 기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조직 구조: 내셔널 오피스(National Office, 전국단위조직) ⇒ 리저널 오피스(Regional Office, 광역단위조직, 10개) ⇒ 브랜치(Branch, 기초단위조직, 400개 이상)
- 재정: 정부기관인 더 스킬스 펀딩 에이전시(The Skills Funding Agency)가 주 후원처이며, 그 외 수강료와 기관 및 개인의 특별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 이사회 및 경영진
  - 이사회(Governance): 12명의 이사(Trustee)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로 구성.
  - 후원자(Patron): 3명의 최고위층 정치전문가(영국 주요 정당 소속)로 구성.
  - 경영진(Management): 1명의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6명의 지역 디렉터(Regional Director), 2명의 회원·자원활동·마케팅 디렉터(Membership·Volunteering·Marketing Director)로 구성.

## 비전 · 지향 가치



### 비전

- 성인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인교육 및 지역사회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기능한다.

## 미션

- 민주주의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성인학습 운동으로 모든 계층, 특히 소외계층 대상 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 학습자들의 잠재력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지향 가치

- 성인학습자들의 대변자로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차별을 철폐한다.
-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다. 학습을 통해 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 학습자 중심 운영으로 모든 일의 중심에 학습자를 둔다.
-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도전한다.

## 주요 활동

•

- 영국 최대 제3섹터 성인교육기관으로, 영국 전역(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걸쳐 매년 약 8만 명에게 약 12,000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 학습자가 있는 곳이라면 동아리, 지역문화센터, 마을회관, 학교, 펍(Pub, 대중 술집) 등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교육은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된다.
- 지역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는 브랜치(Branch)라는 지역 단위 조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가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 주요 교육 분야 및 내용(괄호 안은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지역사회참여(48%): 소외 지역 주민, 특히 교육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예, 창작예술, 컴퓨터, 건강정보 등을 교육한다. 학부 모 교육, 노동조합 활동가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주로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된다.

- 문화(35%): 예술사, 문학, 창조적 글쓰기, 음악, 과학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룬다. 주로 브랜치에서 실시한다.
- 제2의 배움(17%):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문해, 산술, 컴퓨터, 학습법, 외국인을 위한 영어 등을 교육한다.

### WEA 교육의 차별점

- 사회적 목적 및 대의를 중시한다.
- 회원 및 자원활동가의 높은 참여 의식 및 활발한 활동. 이로 인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wea.org.uk](http://www.wea.org.uk)
- 주소: 4 Luke Street, London, EC2A 4XW
- 전화: +44 (0)20 7426 3450
- 이메일: [national@wea.org.uk](mailto:national@wea.org.uk)
- 탐방단 컨택 포인트
  - Ann Hayes(WEA London Region 소속, Community Focus) / [ahayes@wea.org.uk](mailto:ahayes@wea.org.uk), +44 (0)207 4261988(Office)
  - Pearl Ryall(WEA Southern Region 소속, Membership and Volunteer Development Manager) / [pryall@wea.org.uk](mailto:pryall@wea.org.uk), +44 (0)1993 844886(Office)



WEA가 지역 주택 조합 (Housing Association)과 함께 세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자원활동가 워크숍 현장을 방문했다. 워크숍 참관 전 카페에서 WEA런던지역 직원 앤 헤이즈(Ann Hayes)로부터 WEA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우)

## 왜 그들은 자원하는가

브랜치(Branch)는 WEA의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 사회에 탄탄히 뿌리내리고 있는 기초 단위 조직으로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현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 약 400개 이상의 브랜치가 운영 중이다.

브랜치의 역할은 수업 장소 섭외 및 용품 마련, 학습자 모집, 수업료 징수 등의 기초적인 업무에서부터 학습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제공, WEA 프로그램 홍보에 이르기까지 실무 전반을 아우른다. 또한 학습자와 강사, 광역단위 조직인 리저널 오피스(Regional Office) 사이의 소통 채널로서도 기능한다.

브랜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운영이 지역 자원활동가(Volunteer)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해당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학습 욕구와 지역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의견에 기반해 교육을 기획하므로 현장과 유리된 형식적, 교조적 교육이 아닌 주민 맞춤형, 지역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즉, 중앙의 실무자들이 기획한 내용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기획된 내용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교육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브랜치의 자원활동가들이 교육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시간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조직의 실무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중심으로 업무 배분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자원활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의 욕구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문서 작업 등의 행정 업무는 리저널 오피스의 직원들이 지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브랜치의 자원활동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리저널 오피스에서는 관련 강사를 섭외하고 부대 비용 처리 등을 맡는다. 자원활동가들은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지만, 모든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의식 교육은 지양된다. 교실에 조용히 앉아서 초빙된 강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 교육보다는 학습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 워크숍 방식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브랜치가 없을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말이다. 먼저, 회장(Chairman), 총무담당(Secretary), 회계담당(Treasurer) 등 세 명의 위원을 포함하는 브랜치 위원회(Branch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브랜치의 경우 2명만으로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수업비 수납, 수업장소 임대료 지급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위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년 브랜치 총회(Branch Annual General Meeting)를 개최해야 한다.

WEA는 모든 교육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지 않는다. 지역 단체 및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부 단체의 의뢰를 받아 ‘찾아가는 맞춤형’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브랜치를 통한 교육 기획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지역 단체들이 해당 단체의 회원이나 서비스 수요자들의 고유한 학습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WEA에 필요한 교육을 제안, 의뢰하면 그에 맞춰 교육을 제공하는 바텀-업(Bottom-up) 또는 학습자 위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WEA의 교육 중 약 48%를 차지하는 ‘지역사회참여(Com-



munity Involvement)’ 교육이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획, 제공된다. 연간 약 5,000건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지역 단체와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도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학교, 도서관, 보건의료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다.

지역 단체나 지방 정부가 다른 교육 기관이 아닌 WEA에 교육을 의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WEA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 아래 100년 이상의 시간을 성인 교육에 몸담아온 기관이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WEA의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 즉 수준 높은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모니터링 활동도 WEA의 명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 WEA의 모든 수업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참관자들의 모니터링을 받는다. 신규 강사일 경우에는 첫 학기 수업에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WEA의 강사 업무 관련 실무자나 경험 있는 강사들이 참관자로 나서 교수 및 학습 실태 참관(Observ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WEA는 지역 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도 신망을 얻어 더 스킬스 펀딩 에이전시(The Skills Funding Agency)라는 교육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컨퍼런스 행사장에는 자원활동가 소개 색션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WEA 운영에서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원활동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규 직원에 비해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규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강도와 책임감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WEA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해 설립된 WEA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무엇보다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전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눔과 협동에 기반한 학습의 중요성을 오랜 세월 몸소 체험하며 배운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WEA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원활동가들이 무책임하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WEA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참 다양스럽다. 따로 자원활동가 모집을 하기 보다는, 보통 WEA 교육을 수강하던 학습자 중 일부가 자원활동가로 다시 인연을 맺는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와 WEA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게 되고 관심이 깊어지면서 둘 사이의 관계도 서서히 발전한다.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교육을 만들고 서로 배워가는 협동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로 맺어진 이들이기에 자원활동을 통해 얻을 수



## 아래로부터의 학습(Bottom-up Learning) ① 더블유이에이

있는 실질적인 효용을 계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A의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참 많다. ‘일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원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교실에 앉아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마련이다. 자원활동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얻게된 새로운 역량과 자원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정 및 여가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원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 이민자 출신의 학습자가 영어를 배워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된 사례, 학부모로서 겪던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장해 해결한 사례 등 WEA에는 다양하고 감동적인 자원활동 체험기들이 넘쳐난다. 자원활동가들이 WEA에서의 활동을 자신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유다. 📖

WEA 자원활동가들의  
다양한 체험기를  
소개하고 있는 인쇄물

80



## 이웃이 이웃을 이끈다

###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 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

커뮤니티 러닝 챔피언(Community Learning Champion, 이하 CLC)을 우리 말로 옮기면 ‘지역 학습 옹호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평범한 지역 주민이자 자원활동가로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도움이 될만한 교육 과정을 소개하며, 해당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웃들에게 전파한다.

영국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평생학습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존재했다. 이들의 활동이 평생학습 홍보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앞서 소개한 WEA 등 네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을 진행해 이러한 자원활동가들을 CLC로 명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나설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공무원, 정책 수립자, 정치가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이 대신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은 2011년 3월에 종료되었지만, 영국 정부와 지역 단체들은 CLC의 활동을 활성화, 전문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대, CLC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LC 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된 다양한 교육 과정들.  
CLC는 평생학습의  
전도사이자 롤모델이다.



## 조직 · 운영

•

###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주체

- 운영기간: 2009년 8월~2011년 3월(약 18개월)
- 운영주체: 네 개의 기관(NIACE, WEA, unionlearn, Martin Yarnit Associates)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중앙 지원 프로그램: 중앙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CLC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전체 방향성 제시 등의 역할 수행.
- 지역별 CLC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개의 지역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특성을 반영한 CLC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등록 CLC 수: 약 2,000명

### 재정

- 영국 중앙 정부 부처(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에서 예산 편성.
- 총 예산은 약 300만 파운드(약 54억 원)

## 비전 · 지향 가치

•

### 프로그램 배경 및 목적

- 자원활동가를 통한 홍보 방식이 학습 소외자의 교육 기회 확장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평생학습 홍보 관련 자원활동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 CLC 우수 운영 사례 연구 정리, CLC 교육·교육 툴(Tools) 개발 등을 통해 풍부한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이를 통해 CLC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용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 지향 가치

-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 평생학습의 가치에 대한 믿음.
- 다양성, 평등, 소외 해소, 창의성, 협동,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등.

## 주요 활동

•

### 중앙 단위 활동

- CLC 활동 활성화 및 업그레이드, 전국적 확산, 대중적 관심 증대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했다.
  - CLC 교육을 위해 WEA가 공인된 24시간 교육 과정 개발(이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맞춤형 혹은 축약형 버전의 교육을 개발해 제공).
  - CLC 활동 공식화, CLC 브랜드 신뢰도 강화, 효과적 홍보 등을 위해 온라인 CLC 등록 시스템을 구축(약 2,000명 등록)하고 배지 및 로고 등을 제작.
  - 우수 사례, 관련 툴(Tools), 영상, 뉴스 등 유용한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 CLC 프로그램의 영향 및 성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관련자 간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
  - 프로그램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셔널 어드바이저리 그룹(National Advisory Group)이라는 자문 그룹을 조직해 프로그램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CLC 보이스 그룹(CLC Voice Group)을 조직해 CLC들의 의견 수렴 채널로 활용.

## 지역 단위 활동

- 공모를 통해 50개의 CLC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되었다. 주로 소외 지역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 프로그램 기간 및 지원비용: ① 1차 2009년 12월~2010년 3월, 프로그램 별로 최고 3만 파운드(약 5천 400만 원)까지 지원 / ② 2차 2010년 4월~2011년 3월, 프로그램 별로 최고 2만 5,000파운드(약 4천 500만 원)까지 지원.
  - 프로그램 진행 주체: 지역 내 소외 계층 대상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제3섹터, 정부, 기업 등 다양한 기관 혹은 컨소시엄 조직이 프로그램 진행.
  - 지역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 민족, 장애인, 노숙인, 실업자 등 대상 그룹을 명확히 특정해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대상 그룹의 일원을 CLC로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해당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 참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함. CLC 지원 활동은 CLC 온라인 등록, 배지 수여, 각종 교육 및 자료 제공, CLC 간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등을 포함.

## CLC의 활동

- CLC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도움이 될만한 교육 과정을 소개하며, 해당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제안 또는 제공함.
- CLC는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그 기쁨과 필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자신의 학습 경험과 열정을 이웃에게 확산시켜 학습 소외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창출함.
- 사례: 시니어들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CLC, 교육 수준이 낮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젊은 학부모 CLC, 노숙인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출신 CLC,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 사회 복귀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우울증 경험자 CLC 등.
- CLC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지침에 구속되기보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만 따르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다만,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CLC 한 명 당 약 30명의 이웃 접촉하기, 활동 모습 사진으로 담기, 접촉한 주민으로부터 간단한 진술서 받기 등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됨.

- CLC 활동 유형: 이웃에게 평생학습 참여 독려, 교육 과정 소개, 이웃의 교육 욕구 파악, 지역 교육기관의 교육 제공 현황 파악,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 설계 및 제공,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평생학습기관의 교육 과정 계획 지원, 이웃의 평생학습 참여 과정 지원 및 격려(교육과정 선정, 교육기관 접촉 및 신청 등을 옆에서 지원하며 자신감을 고취시킴), 학습자 교육 참여 및 발전 과정 모니터링 등.

### 프로그램 영향 및 성과

- CLC에 대한 영향: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기적인 성과라면 무엇보다 CLC 자신의 삶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들은 CLC 활동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CLC로 등록했다. CLC 활동 이후 이중 37%가 취업에 성공했고, 22%는 교육 수강, 15%는 다른 CLC 프로그램 참여, 16%는 다른 자원봉사 참여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 CLC 구성: 여(72%), 남(28%) / 19~24세(11%), 25~49세(63%), 50~74세(25%), 75세 이상(1%) / 흑인 및 소수 민족(41%) / 장애인(13%) / 육아 및 노인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45%) / 실업자(47%)

- 학습 소외자에 대한 영향: CLC의 활동을 통해 약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과 접촉했다. 이는 CLC 한 명당 약 50명에 해당되는 숫자로, 초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이다. 이들 중 68%는 새로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 CLC 접촉 주민 구성: 여(67%), 남(32%) / 장애인(22%) / 실업자(70%)

- CLC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영향: CLC의 활동 덕분에 이전에는 접촉하기 어려웠던 소외 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발굴된 CLC들이 계속 존재하므로 CLC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CLC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 단체 및 정부 기관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이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 연락처

- **관련 웹사이트:** [www.communitylearningchampions.org.uk](http://www.communitylearningchampions.org.uk)(CLC 관련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은 별도의 웹사이트가 없음)
- **문의처:** 상기 사이트 내 Contact us 코너를 통해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관련 문의 가능.
- **탐방단 컨택 포인트:** WEA와 동일(WEA는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한 곳).



CLC 관계자의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우수 사례, 관련 툴(Tools), 영상, 뉴스 등의 유용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 평생학습도 ‘팬클럽’이 필요해

모름지기 변화는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나서서 해주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평생교육 기관 실무자, 공무원, 정책 수립자, 정치가)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운전대를 잡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철학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구호나 믿음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CLC는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특성, 욕구 및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들을 외부인이 아닌 내 이웃,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 사회의 학습 소외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따라서 그들을 학습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CLC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CLC다.

특히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CLC 프로그램은 지역 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 민족, 장애인, 노숙인, 실업자 등의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누구

보다 평생학습 참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인 공통점으로 묶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체의 일원인 CLC의 소속감이나 주인의식이 커지고, CLC의 활동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전에는 접촉하기 어려웠던 소외 계층으로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CLC와 실무자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야 할까. 둘 간의 관계는 대체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가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대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는 잠재 학습자 발굴 및 접촉, 교육 욕구 파악은 CLC가 맡고, 실무자는 CLC 지원, 협력, 자문의 역할을 맡아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습자들을 참여시켜 함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적극적 참여자가 아닌 수동적 소비자의 입장으로 평생학습 기관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생계 유지로 바쁜 일상에 쫓겨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대인에게 그 이상의 참여를 권유하는 일도 쉽지 않다. 또한, 정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자원활동가에게 일을 부탁하느니 실무자가 혼자 처리해 버리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

CLC 첫 등록자인 스테파니 피켓  
(Stephanie Pickett)에게  
지역 시장이 CLC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좌).  
오른쪽이 CLC 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저 ‘시민 참여’라는 원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직된 원칙으로만 고수하지도 않고, 어렵지만 한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수 밖에.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공략하기보다 소수의 ‘팬’을 발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옹호하며, 스스로 기쁘게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팬’ 말이다.

CLC는 바로 평생학습의 ‘팬클럽’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배움의 기쁨과 필요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는 ‘간증(干證)’은 상당히 설득력이 높다.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 후기나 말 한마디는 종종 전문가가 제시하는 과학적 수치나 논리적 주장보다 현실감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영국의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왜 학습 소외자의 교육 기회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CLC의 활동을 전통적인 홍보 활동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다.

또한 CLC 프로그램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CLC로 활동한 이들 자신의 삶의 변화라는 사실에서 왜 이들이 평생학습의 팬이 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 CLC로 활동했던 이들은 활동 이후에도 취업, 타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평생학습 참여와 CLC 활동을 통해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문을 연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만난 주민보다 앞으로 만나야 할, 아니 만나고 싶은 주민들이 훨씬 많다. 이들을 어떻게 평생학습 ‘팬클럽’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CLC의 활동에서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의 한 CLC 프로그램  
이벤트에 영국 왕실의  
공주가 방문해 CLC들을  
격려하고 있다.  
CLC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실행했다.



## 성공적인 CLC 프로그램을 위한 7계명

다양한 CLC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일곱 개의 성공요소를 소개한다.

### 1. CLC 발굴 및 선정

- CLC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거나 해당 그룹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CLC로 선정한다.
- CLC 후보자가 CLC 역할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필요시 전과 기록 확인 등의 절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 2. CLC 역할 정의

- CLC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특정 그룹의 특성 및 CLC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역할을 결정한다.
- CLC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된 전략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미리 준비하고, CLC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좋은 CLC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수 CLC 활동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비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인 관계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 3. 교육 및 지원 제공

- 매일매일의 CLC 활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CLC가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신입 CLC가 자신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CLC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대일 또는 그룹 평가를 진행한다.
- CLC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공인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 CLC에게 교육 기회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또는 학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CLC 등록 및 승인 절차

- CLC 공식 등록 절차를 거침으로써 CLC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CLC 등록 및 배지 수여 등의 절차를 통해 CLC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자부심을 배양한다.

### 5. 평등과 다양성

- 평등, 다양성, 소외 해소 등의 가치가 CLC 프로그램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6.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 다른 CLC 프로젝트 관련자, 관련 단체들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한다.
- CLC 프로그램이 소외 계층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또는 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펀딩 및 재정 상황이 변화를 겪더라도 CLC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 7. 기록·보고·성과 축하

- CLC 활동 내역을 제대로 관리·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CLC 활동의 결과나 성과 및 영향을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성과를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 기타

이번 영국 탐방을 통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실험 중인 여러 기관(또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다. 각기 조금씩 다른 성격의 활동을 펼쳐가고 있기에 한 가지 열쇳말로 묶을 수는 없었지만, 영국 사회 특유의 실험 정신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는 탐방단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시사점을 제공했다.

- 

스쿨 오브 에브리싱(School of Everything)

- 

더 허브(The Hub)

- 

어덜트 러너즈 위크(Adult Learners' Week)

- 

나이에이스(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

- 

더 스쿨 오브 라이프(The School of Life)

- 

대안교육 운동(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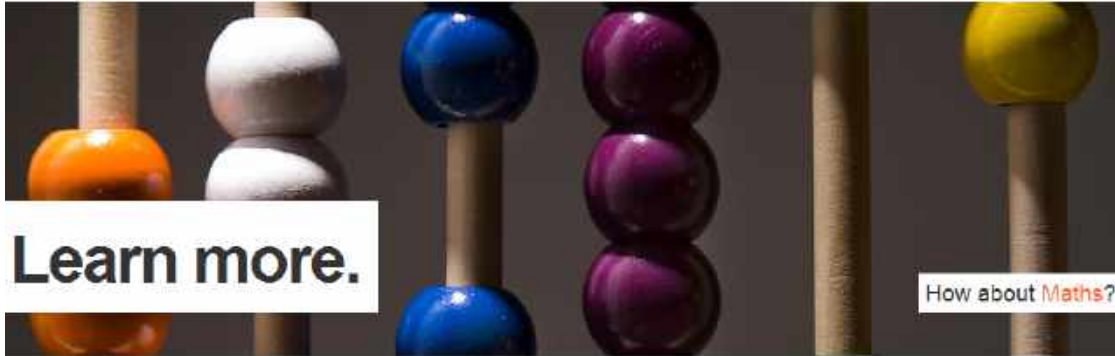
##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학교

### 스쿨 오브 에브리싱

### School of Everything

스쿨 오브 에브리싱(School of Everything)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학습 중개 웹사이트다. 2006년 영국의 비영리 사회혁신 단체 영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등 여러 단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다. 사업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언론과 사회혁신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공부한다’, ‘배움은 비싼 이유가 없다’, ‘배움에 자격증이나 졸업장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온라인 밖으로 나와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등 너무나 매력적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선언문)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곳이다.



**Make your brain bigger**  
Whether it's a new language, a musical instrument or rocket science - learn new things and get really clever.

**So, what do you want to learn?**

Find lessons and teachers near you. You can now search by UK postcode.

in

간결하고 한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스쿨 오브 에브리싱 웹사이트

## 조직 · 운영

•

- 2006년 비영리조직이 아닌 회사 형태로 설립.
- 영국의 비영리 사회혁신 단체 영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 등 여러 단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다.
-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프리 유(Free U)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프리 유 운동은 누군가가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적힌 한 장의 종이를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다양한 주제들이 나열되었고, 사람들은 게시판 목록에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골라 자유롭게 학습을 조직했다.

## 비전 · 지향 가치



### 매니페스토(Manifesto, 선언문)

-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다(Everyone has something to teach).
- 개인마다 학습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각자가 학습 방법을 정한다(Everyone has their own way of learning).
- 배움은 친구와 함께 할 때 더 좋다(Learning is better with friends).
- 배움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You should never stop learning).
- 배움은 비쌀 이유가 없다(Education shouldn't be expensive).
- 배움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다(All subjects are important).
- 배우는 과정에 의미가 있을 뿐, 자격증이나 졸업장 같은 증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Qualifications are overrated).
- 온라인 밖으로 나와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한다(The real world is better than the internet).

## 주요 활동



### 온라인 학습 중개 웹사이트 운영

-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혹은 단체)은 회원으로 등록한 뒤 제공할 교육 관련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려 광고한다. 유료·무료 교육 모두 가능하다. 등록비는 없다.
-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한 뒤 주제 별 혹은 지역 별로 교육 목록을 검색해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쳐줄 사람과 직접 연락을 취한다. 학습 방법에 대해 서로 조율한 후 교육을 시작한다. 역시 등록비는 없다.
- 스쿨 오브 에브리싱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할 뿐 서로 간의 조율 과정 및 계약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주의 사항 공지, 신고 내용 처리,

문의 사항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학습 주제

- 생물학, 벌 키우기, 역사, 홀라후프, 외국어, 댄스, 노래, 운전, 악기, 글쓰기 등 광범위한 주제의 학습이 가능하다.

### 관련 통계(2012년 1월 현재)

- 일일 웹사이트 방문자 수: 약 3,000~4,000명
- 방문자 추이(2011년): 1월 91,230명 / 2월 75,712명 / 3월 88,045명 / 4월 56,465명 / 5월 55,721명 / 6월 58,463명 / 7월 54,874명 / 8월 56,414명 / 9월 62,244명 / 10월 70,656명 / 11월 79,198명 / 12월 63,775명
- 등록 강사 수: 약 12,000명
- 회원 연령: 18세에서 75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한다. 20~30대가 가장 많다.
- 회원 만족도: 3개월에 한 번 진행되는 표본 설문 조사에서 ‘스쿨 오브 에브리싱을 친구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5명 중 4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 연락처

•

- 홈페이지: [schoolofeverything.com](http://schoolofeverything.com)
- 주소: 18 Victoria Park Square, Bethnal Green, London, E2 9PF
- 전화: +44 (0)20 8980 8435
- 이메일: [hello@schoolofeverything.com](mailto:hello@schoolofeverything.com)

웹사이트에서  
관심 수업을 지역 별,  
주제 별로 검색할 수 있다.

<b>London</b> Music, Languages, dance, yoga, Singing, martial arts, Creative Writing, photography, Composition, Personal Development	<b>Manchester</b> Music, Languages, Driving, yoga, martial arts, dance, Singing, Creative Writing, Composition, photography	<b>Creative Writing</b>	<b>Languages</b>
<b>Birmingham</b> Music, Driving, martial arts, Languages, dance, yoga, Singing, Creative Writing, photography, Personal Development	<b>Bristol</b> Music, dance, Singing, yoga, martial arts, Languages, Driving, Creative Writing, Techniques, Personal Development	<b>Korean</b>	<b>Korean language</b>
<b>Sheffield</b> Music, Languages, Driving, dance, yoga, Singing, Creative Writing, martial arts, photography, art	<b>Leeds</b> Music, Languages, martial arts, dance, Driving, Singing, yoga, Creative Writing, Composition, photography	<b>Korean conversation</b>	<b>Filipino spiritual Healing</b>
		<b>Composition</b>	<b>yoga therapy</b>

## 단순하지만 강력한 ‘학습망’

스쿨 오브 에브리싱의 멋진 선언문은 간결하지만 배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배움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부라고 하면, 소위 잘 팔리거나 뜨는 분야는 무엇인지, 잘 나가는 학교나 학원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본다. 학교에 가면 짝 짝인 커리큘럼과 교사의 지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묵묵히 그 과정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지 어떤 공부 방식이 나에게 적합한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고민할 필요도 없다. 사실 내게 필요한 건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졸업장이나 수료증과 같은 공인된 증명서일 뿐이다. 인지도도 낮고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아 스펙 쌓기에 별 쓸모가 없는 제도권 밖의 배움은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사치이며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배움을 기획할 능력도, 함께 공부할 스승과 친구들을 찾아 나설 여력도, 배움의 진정한 기쁨과 열정을 누릴 용기도 없는 것 같다. 그저 끊임없는 스펙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잘 만들어진 교육 상품을 열심히 소비할 뿐이다.

교육의 조직화, 대형화, 상품화, 엘리트화라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학습 중개 사이트’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로 제도권 교육에 도전장을 던진 스쿨 오브 에브리싱. 이들의 실험은 이반 일리히(Ivan Illich)의 학습망(Learning Web)을 떠올리게 한다. 학교 제도가 사회 불평등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한 일리히는 그의 저서 『탈학교 사회(Deschooling Society)』에서 교육의 중심을 ‘학교’라는 물리적인 장소로부터 ‘학습망’이라는 학습 활동의 네트워크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히가 꿈꿨고 스쿨 오브 에브리싱이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이 강력한 학습 네트워크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배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배움, 경쟁이 아닌 함께 하는 배움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있는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

## ‘공간 + $\alpha$ ’를 빌려드립니다

### 더 허브

### The Hub

더 허브(The Hub)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가 완비된 공간에 놀라운 일을 꿈꾸는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과 영감을 주고 받는다. 이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소규모 벤처 기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구체화되어 간다.

더 허브는 교육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꿈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열정이 가득한 공간은 그 어떤 정형화된 학습 공간보다 더 훌륭한 배움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허브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운동(Movement)처럼 런던, 샌프란시스코, 요하네스버그, 멜버른, 상파울루, 밀라노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허브 공간, 커뮤니티, 이벤트가 한 데 어우러진 곳이 바로 허브다.

## 조직 · 운영

- 2005년 런던에 제1호 허브가 설립됐다. 2011년 10월에는 허브 웨스트민스터가 문을 열었다.
- 허브 웨스트민스터의 경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환원한다.

### 규모

- 현재 운영 중인 허브는 25개 이상이며 50개 이상의 새로운 허브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전체 회원 수는 4,000명 이상이다. 허브 웨스트민스터의 경우 설립 6개월 만에 300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 현재 허브는 전세계 5개 대륙에서 운영되고 있다.

### 조직 체계

- 허브(Hub):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 임대 조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개의 허브가 운영되고 있다. 허브 웨스트민스터를 예로 들면, 대표(CEO), 프로그램 책임자(Head of Programs), 상임 싱커(Thinker in Residence), 운영관리자(Office Manager), 재정담당자(Finance Administrator)가 포함된 운영팀과 2명의 이사회(Board)로 구성되어 있다.
- 허브 어소시에이션(Hub Association): 모든 허브의 협의체이자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각 지역 허브가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된다. 각 허브는 전체 의사 결정 시 1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규 허브는 사전 심사 및 회원들의 투표와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투표로 선출된 3명의 이사(Director)는 허브 글로벌 팀(Hub Global Team)에 대한 감독 및 전체 의결 사안을 위한 총회 주재 등의 역할을 한다. 이사는 자원활동가로 일하며 임기는 1년이다. 모든 허브 회원이 후보가 될 수 있다.
- 자문위원회(Board of Advisors): 4명으로 구성. 1년에 네 차례 모여 허브 전체의 전략적 방향과 재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 허브 글로벌 팀(Hub Global Team): 허브 어소시에이션의 집행 조직으로 허브 글로벌 네트워크의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일한다. 비영리조직 형태로 허브 어소시에이션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다.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브뤼셀, 런던, 비엔나에 소재한 허브에서 지속적 성장 및 기술(Sustainable Growth and Technology),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Capacity Building & Network Collaborations), 운영 및 법무(Operations & Legal)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클러스터(Clusters), 워킹그룹(Working Groups): 전 세계 허브 회원들이 관심 주제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룹이다. 정보 및 인적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허브 프랙티스 아카데미(Hub Practice Academy)와 유럽 내 사회혁신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EU 클러스터(EU Cluster) 등의 그룹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 비전 · 지향 가치

•

### 설립 배경 및 비전



더 허브 조직 체계도

- ‘훌륭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지원 체계가 부족할 뿐’이라는 문제인식 아래 설립되었다.
-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창조적 벤처의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이자, 혁신적인 연구소이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이자, 집과 같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향한다.

## 사명

- 우리는 공간을 창조한다.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필요한 것들이 원활히 지원되는 그러한 공간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어 세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 지향 가치

- 신뢰(Trust):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는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를 중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우리의 핵심 과제로 여긴다.
- 용기(Courage):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며, 그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를 채찍질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협력(Collaboration):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간다.

## 주요 활동

•

### 공간 대여 + $\alpha$

- 간단히 정의하면 더 허브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이다. 1인 기업 등 소규모 벤처 기업가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회의, 워크숍, 강연, 파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공간도 대여해준다.
- 단순히 임대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벤처 기업가들에게 편리하고 창의적인 업무 공간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영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공간의 특징

- 기존의 정형화된 사무실과 같은 딱딱하고 단절된 공간이 아닌, 소통·협업·혁신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결합된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이다.
- 복사기, 빔프로젝터, 방송 설비, 화상 회의 시스템 등 업무에 필요한 첨단 기자재가 완비되어 있다. 창의적인 회의 공간, 간단히 음식을 해 먹거나 저장할 수 있는 공동 부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등이 세심하고 멋스럽게 마련되어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회원들의 공공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이 편리하고, 사업 홍보 및 인지도 확보에 유리하다.

### 공간 구성 및 기능(허브 웨스트민스터 사례)

- 전체 규모: 1,115m<sup>2</sup>(337평)
- 워크숍(Workshop): 개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에 책상 등이 놓여 있다.
- 더 스테이지(The Stage), 더 스튜디오 카페(The Studio Cafe): 대규모 강연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 더 스트레이티지 랩(The Strategy Lab), 러닝 랩(Learning Lab): 워크숍 및 교육을 개최한다.
- 라이브러리 테이블(Library Table): 중규모 원탁회의 등이 가능하다.

- 이노베이션 그린하우스(Innovation Greenhouse), 위키하우스(Wikihouse): 소규모 업무 회의 용 공간.
- 이용 가능 물품 및 부대 시설: 와이파이, 플립차트, 화이트보드, 문구류(이상 무료),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노트북, LCD스크린, 비디오 편집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방송 설비, 화상 회의 시스템(이상 유료) 등

### 개인 공간 사용료(허브 웨스트민스터 사례)

회원 종류	Hub Connection	Hub 30	Hub 50	Hub 100	Hub Unlimited
월 사용 시간	-	30시간	50시간	100시간	무제한
월 사용 비용	£15(₩20)	£95(₩125)	£145(₩195)	£245(₩295)	£395(₩475)

- £15(약 ₩27,000)/£95(약 ₩171,000)/£145(약 ₩261,000)/£245(약 ₩441,000)/£395(약 ₩711,000)
- 괄호 안은 연 매출이 7만 3,000파운드(약 1억 3천만 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요금.
- 회원 자격: 사회적 경제 등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에게 공간을 대여한다. 이러한 일이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Hub Connection 회원으로 가입 가능.
- 회원에게는 회의실 사용 및 행사 참여 시 할인가가 적용되며,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 주중 8시~9시와 17시~23시, 주말 11시~17시에만 공간을 사용하는 회원에게는 오프라인(Offline)이라는 할인 가격 적용. 예를 들어 Hub 50 오프라인 회원은 £25, Hub Unlimited 오프라인 회원은 £45의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회의 공간 사용료(허브 웨스트민스터 사례)

- 더 스테이지(The Stage): 오전, 오후 또는 저녁 단위로 예약 가능. 전일 및 주말 예약 가능. 최소 495파운드(약 89만 원).
- 더 스튜디오 카페(The Studio Cafe): 주중에는 10시~18시 외의 시간만 예약 가능. 주말 예약도 가능. 최소 395파운드(약 71만 원).
- 더 스트레이티지 랩(The Strategy Lab), 러닝 랩(Learning Lab): 시간제 예약 가능. 전일 및 주말 예약 가능. 시간 당 최소 75파운드(약 14만 원).

- 이노베이션 그린하우스(Innovation Greenhouse), 위키하우스(Wikihouse): 시간제 예약 가능 (4-6-8명 사용 가능). 전일 및 주말 예약 가능. 시간 당 최소 30파운드(약 5만 원).
- 라이브러리 테이블(Library Table): 시간제 예약 가능. 18명까지 사용 가능. 전일 및 주말 예약 가능. 시간 당 최소 55파운드(약 10만 원).

### 기타 서비스 및 활동(허브 웨스트민스터 사례)

- 학습 및 네트워킹 서비스: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제공은 물론, 학습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학습 및 사교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도 하고, 허브 웨스트민스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허브 웨스트민스터 공간을 대여해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케이터링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요청 시 유기농 농산물, 공정무역 상품, 지역 먹을거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영상 제작: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덕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요청 시 비디오 제작, 실시간 방송, 편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Space Name	Capacity	Size
THE STAGE	120 x 120	120sqm / 13m x 12m
THE FIRM SAFE	140 x 100	280sqm / 14m x 20m
THE STRATEGY LAB	30 x 45	135sqm / 14m x 10m
THE LEARNING LAB	70 x 50	350sqm / 8m x 12m
THE LIBRARY	18	40sqm / 4m x 10m
THE INNOVATION GREENHOUSE	4-8	7sqm / 2.5m x 3.5m
THE WIKIHOUSE	4-8	16sqm / 2.5m x 3.5m
BOOK & SPACE	-	-

**BOOK A SPACE NOW**

Please click [HERE](#) to express your interest in booking one of our event spaces. Our events team will try their utmost to get back to you within 2 working days.

허브 웨스트민스터 공간

### 운영 시간(허브 웨스트민스터 사례)

- 월,금 8시~21시
- 화,수,목 8시~23시
- 토,일 11시~17시

### 연락처

•

#### Hub Global Team

- 홈페이지: [www.the-hub.net](http://www.the-hub.net)
- 주소: Hub GmbH, Lindengasse 56/18-19, 1070 Vienna, Austria
- 이메일: [connect@the-hub.net](mailto:connect@the-hub.net)

#### Hub Westminster

- 홈페이지: [www.hubwestminster.net](http://www.hubwestminster.net)
- 주소: First Floor, New Zealand House, 80 Haymarket, London, SW1Y 4TE
- 전화: +44 (0)20 7148 6720
- 이메일: [hosts@hubwestminster.net](mailto:hosts@hubwestminster.net)

허브 회원들은 행사 및 회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 학교 아닌 학교, 더 허브

소위 ‘공부’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교육 기관이나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학교 수업이나 시험을 통해 배운 것 보다, 일상에서 배운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 모르는 일을 처리하려고 이런 저런 자료를 뒤져가며 익힌 전문 지식,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배운 업무 스킬,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겪으며 배운 대인관계 능력,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배운 삶의 다양성, 사계절의 변화에서 터득한 자연의 이치 등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 많은 흔적과 차이들을 만든다.

이렇듯 공부는 자신의 삶과 유리된 죽은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일, 인간관계, 낯선 경험, 여가 생활 등을 통해, 매순간의 성실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가 공부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더 허브는 그 어떤 정형화된 학습 공간보다 더 훌륭한 배움의 장이다. 단순히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과 협력이 일어난다. 지속적인 자극과 영감으로 넘쳐나며,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는 실험이 가능하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빚어내는 화음 속에서 허브와, 허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



## 실속차린 평생학습 축제

### 어덜트 러너즈 위크

### Adult Learners' Week

성인 학습 주간'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어덜트 러너즈 위크(Adult Learners' Week)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축제로 매년 약 10만 명이 참가한다. 우수 학습 사례에 대한 시상, 강좌 체험 기회 제공, 평생학습 관련 대정부 정책 로비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와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부스(Booth)나 화려한 홍보물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행사 보다는 맛보기 강좌 등을 통해 잠재적 학습자들과의 소통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중시한다.

1992년에 시작된 어덜트 러너즈 위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어 약 46개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113

어덜트 러너즈 위크 행사 기간에 개최되는 시상식 모습.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는 유명 TV 진행자가 사회를 맡고 관련 부처(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



## 조직 · 운영

- 1992년 1회 행사를 개최했고 2012년 21회를 맞았다.
- 영국의 국가평생교육원이라 할 수 있는 나이에이스(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에서 주최한다.

## 운영 방식

- 전국 단위 행사: 우수 평생학습 사례에 대한 전국 단위 시상, 평생학습 정책 컨퍼런스, 의회 리셉션 등을 나이에이스에서 진행한다.
- 지역 단위 행사: 지역 평생학습 기관 별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화려한 부스 설치 등을 통한 ‘보여주기식’ 홍보보다는, 맛보기 강좌(Taster Session) 등을 진행해 주민들이 직접 평생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비전 · 지향 가치

## 슬로건

- 평생학습자들을 축하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참여시키자(Celebrate, inspire and engage adult learners).

## 주요 활동

## 행사 내용

- 우수 학습자 및 학습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전국 및 지역 단위로 진행한다.
- 평생학습 기관들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강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평생학습 정책 컨퍼런스(National Policy Conference), 의회 리셉션(Adult Learners' Week

Parliamentary Reception) 등을 통해 대정부 정책 로비 활동을 펼친다.

- 비비씨(BBC), 가디언(The Guardian) 등 유력 언론의 행사 보도를 이끌어낸다.
- 유수의 후원 기관을 확보한다.

### 개최 시기 및 참여 인원

- 매년 개최되며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참가한다.
- 2012년에는 5월 12일에서 18일까지 일주일 간 개최되었다.

### 행사에서 다루는 평생학습 주제

- 예술과 문화 관련 학습(Learning through Art and Culture)
- 가정 및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습(Learning with your Family / Community)
- 건강 관련 학습(Learning for Health)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학습(Learning through Sport and Leisure)
- 기술 및 혁신 관련 학습(Learning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on)
- 직업 관련 학습(Learning for Work)
-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Learning about your World)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alw.org.uk](http://www.alw.org.uk)
- 주소: Campaigns Team, NIACE, 21 De Montfort Street, LE1 7GE
- 전화: +44 (0)116 204 4200
- 이메일: [alw@niace.org.uk](mailto:alw@niace.org.uk)

※ 어덜트 러너즈 위크는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누어 행사를 개최하며 이에 따라 전국 단위 행사 관련 문의처와 지역 단위 행사 관련 문의처가 각각 다르다. 전국 단위 행사의 경우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지역이 각각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며, 상기 연락처는 잉글랜드 지역 행사 관련 연락처다. 홈페이지 내 'Contact us' 코너에서 모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평생학습 정책 컨퍼런스(좌)와  
의회 리셉션

## 행사장이 대체 어딘가요?

영국 탐방 시기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어덜트 러너즈 위크 개최 시기였다. 평생학습 축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니뭐니해도 부스들의 향연. 짧은 기간의 해외 탐방을 계획하는 사람들로써 어찌 수많은 평생 학습 관련 단체의 홍보물을 한 자리에서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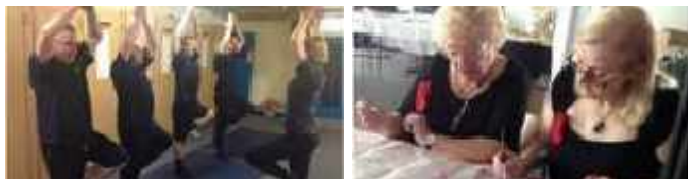
앗,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화려한 이벤트와 홍보물을 기대하며 찾아간 한 지역 도서관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너무나 조용하다. 날짜를 잘못 안 것일까.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알려준다. 도서관 한 구석에 단출한 칸막이를 듬성듬성 세워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열 명 안팎의 사람들. ‘정원 없이 채소 기르기’ 맛보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다. 칸막이 밖의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

고 있었다.

영국의 평생학습 축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사실, 잠재적인 학습자들에게는 그럴싸한 소개 자료나 홍보 이벤트보다는 평생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말이다. 기관 홍보나 강좌 소개를 위한 화려한 부스가 축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는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소통의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 평생학습 축제의 주인공은 기관의 홍보물도, 단체의 실무자도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우리에게도 요란스레 걸 치장에 신경쓰는 ‘행사’보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내실을 기한 진정한 ‘축제’가 필요하다. 📦

다양한 맛보기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 영국 평생학습계의 말언니

### 나이에이스

### 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NIACE

나이에이스(이하 NIACE)는 성인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 1,000개 이상의 조직이 가입한 협회 단체로 1921년에 설립되었다. 평생학습 관련 비정부기구(NGO)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평생학습 관련 캠페인 및 행사 진행, 조사 연구와 컨설팅, 대정부 정책 활동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폭넓은 영역의 활동을 펼친다.



NIACE가 발간하는 평생학습 저널 "Adults Learning"

## 조직 · 운영

- 조직 형태: 비정부기구이며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 조직.
- 회원 구성: 개인 및 단체 자격으로 회원 가입. 대학, 지방·중앙 정부, 방송·언론사, 협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후원인(Patron): 영국 왕실의 공주가 후원인(Patron)으로 NIACE 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한다. 2009년에는 어덜트 러너즈 위크 기간에 열리는 평생학습 시상식에 참가하기도 했다.

### 조직 구조

- 정책 · 의사 결정: NIACE는 회원 조직으로 모든 정책 및 의사 결정은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사회(The Company Board): 13명의 이사(Trustee)로 구성된다. NIACE의 전반적인 활동과 운영을 책임진다. 1년에 최소 3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개최되는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3년 임기로 이사(Trustee)를 선출한다. 이외에도 총회에서 회계 감사 결과 및 연차보고서 승인,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된다.
- 위원회(NIACE Committees): 정책 및 전략(The Policy and Strategy Committee), 재정 · 인사 등 행정 및 운영(The Resources Committee), 감사(The Audit Committee), 투자(Investment Committee)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다.
- 관할 지역: NIACE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을 관할하되, 웨일스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는 NIACE Dysgu Cymru라는 부문(Division)을 따로 두어 다루고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직접 관할하지는 않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세 단체인 NIACE, 커뮤니티 러닝 스코틀랜드(Community Learning Scotland), 북아일랜드 평의회(The Northern Ireland Council)로 구성된 성인 교육을 위한 UK 포럼(UK Forum for the Education of Adults)이라는 기구를 두어 서로 협력한다.

### 재정

- 자체 수익 사업과 외부 단체 후원으로 충당한다. 주요 후원처는 중앙 정부부처(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로비 단체인 지역 정부 협회(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이다.

### 비전 · 지향 가치

•

- 모든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장려한다.

## 주요 활동

- NIACE는 평생학습관련 캠페인 및 행사 진행, 조사 연구, 컨설팅, 대정부 정책 활동, 관계자 네트워킹 지원, 출판, 전문정보 제공,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어덜트 러너즈 위크(Adult Learners' Week)

- 어덜트 러너즈 위크는 영국 최대 평생학습 축제로 1992년에 시작되어 현재 매년 약 10만 명이 참가한다. (상세 내용은 본 자료집의 '어덜트 러너즈 위크' 항목 참조)

### 평생학습의 미래에 대한 연구(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IFLL)

- IFLL은 NIACE가 발주한 독립 연구 프로젝트로 성인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 간 진행되었다.
- 연구 결과의 주요 메시지는 현 시대에 맞도록 평생학습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청년 취업연령 상승, 잦은 이직, 다양한 고용 형태 출현 등의 급속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인생 각 시기에서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생 전체를 네 단계(25세 이전/25~50세/50~75세/75세 이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노동, 학습, 여가의 시간 배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주장했다.
- 그 외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조가 눈길을 끈다.
  - ① 50세 이후의 계속 교육을 위한 재정 확대
  - ② 풀타임(Full-time)과 파트타임(Part-time) 학습 간 재정 지원 차별 철폐
  - ③ 시민의식 배양의 중요성
  - ④ 지역 및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 제공
- 2년 간의 연구로 주보고서인 「Learning Through Life」 외에도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niace.org.uk/lifelonglearninginquiry](http://www.niace.org.uk/lifelonglearninginquiry) 참조.

### 저널 『어덜츠 러닝(adults Learning)』

- NIACE가 1년에 네 차례 발행하는 평생학습 저널.
- 평생학습 계의 저명한 연구자 및 활동가의 깊이 있는 분석보고서, 전문가 칼럼, 뉴스 등을 담고 있어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수립자에게 필독 자료로 유명하다.
- 우편 구독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고, 인터넷판 구독도 가능하다.
- 해외 구독비
  - ① 책자+인터넷판: 개인 £54(약 10만 원), 단체 £85(약 15만 원)
  - ② 인터넷판: 개인 £35(약 6만 원), 단체(1인 이용) £55(약 10만 원), 단체(다수 이용) £95(약 17만 원)
- 자세한 내용은 [www.niace.org.uk/publications/adults-learning](http://www.niace.org.uk/publications/adults-learnin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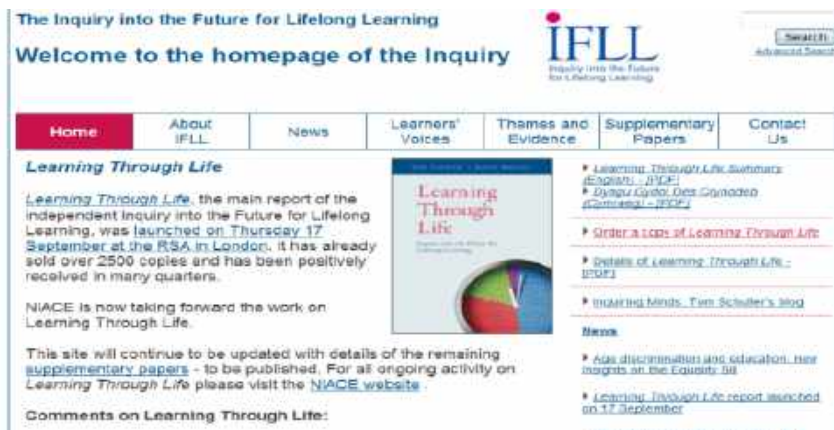
###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The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National Support Programme)

- 평생학습 홍보 자원활동가인 CL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IACE 등 네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약 18개월 동안 진행했다. (상세 내용은 본 자료집의 ‘CLCs 내셔널 서포트 프로그램’ 항목 참조)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niace.org.uk](http://www.niace.org.uk)
- 주소: Chetwynd House, 21 De Montfort Street, Leicester, LE1 7GE
- 전화: +44 (0)116 204 4200/4201
- 이메일: [enquiries@niace.org.uk](mailto:enquiries@niace.org.uk)



NIACE의 '평생학습의 미래에 대한 연구(IFLL)'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NIACE 활용법

NIACE는 그 오랜 역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풍성한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한 곳이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웹사이트만도 수 십 개에 이른다. 영어로 되어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생학습 관계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만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최신 해외 사례와 양질의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이들이라면 가끔이라도 접속해 정보의 바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NIACE가 발간하는 평생학습 저널인 『어덜츠 러닝(Adults Learning)』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할 만 하다. 영어 공부와 해외 평생학습 동향 파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 더 스쿨 오브 라이프

### The School of Life

작가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어른을 위한 인생 학교다. ‘왜 나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인간 관계가 힘든 것일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등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고민들이 바로 공부의 주제인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는 면이 있어서인지 알랭 드 보통의 글은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삶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그의 목소리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철학자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알랭 드 보통.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조직 · 운영

•

- 설립: 2008년
- 설립자 및 회장: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 조직 구성: 이사(Director), 프로그램 총책임자(Head of Programmes & Projects), 웹사이트 및 홍보 관리자(Website & Marketing Manager), 프로그램 기획자(Curator of Public Programmes),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me Manager), 판매 및 예약 관리자(Retail & Bookings Manager)
- 사무실 및 상점 운영 시간: 월~금 12:00~18:00

## 비전 · 지향 가치

•

- 더 스쿨 오브 라이프는 일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일상과 유리된 추상적인 학문은 지양한다. 회사생활, 인간관계, 여가생활, 가족관계 등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를 배움의 주제로 삼는다.
- 도그마(Dogma, 독단적 진리)가 아닌 다양한 시각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상의 문제들에서 한 발 물러나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
-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주요 활동

•

-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그 외 독서치료(Bibliotherapy), 심리(Psychotherapy) 프로그램과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업 종류 및 내용

- 주중 수업: 저녁에 약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일회성 수업. 수업 정원은 20~25명. 와인과 간식을 곁들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강사의 강의, 문제 제기, 토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수업료는 31.5파운드(약 5만 7천 원). 수업 주제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논의의 과정에 철학, 심리학, 사회학, 문학 등 깊이 있는 인문학적 시선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수업 제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내가 사랑하는 직업 찾는 법(How To Find A Job You Love)
- ② 일과 개인 생활을 조화시키는 법(How To Balance Work With Life)
- ③ 인간관계란 얼마나 중요한가(How Necessary Is A Relationship)
- ④ 좀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법(How To Be A Better Friend)
- ⑤ 좀 더 나은 대화법(How To Have Better Conversations)
- ⑥ 네트워크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How To Live in a Wired World)
- ⑦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는 법(How To Enjoy Your Family)
- ⑧ 죽음에 대처하는 법(How To Face Death)
- ⑨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How To Stay Calm)
- ⑩ 돈과 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법(How To Change your Relationship to Money)
- ⑪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How To Make a Difference)

- 출간 및 순회 강연: 2012년 5월에는 그 동안 진행했던 강좌 중 인기가 많았던 강좌의 내용을 여섯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TSOL LIVE라는 4개 지역 순회 강연도 진행되었다. 스쿨 오브 라이프의 수업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엿 볼 수 있다. (스쿨 오브 라이프 홈페이지 'shop' 코너 참조)

- 주말 수업, 여름 학교 등 심화 수업: 주중 수업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확장시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업 정원은 약 40명.
- 설교(Sermon): 450명 정도의 청중이 참석하는 대규모 특강.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영감을 얻는 데서 착안했다.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비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저녁 식사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 수업 참여자 및 강사 특성

- 수업 참여자: 알랭 드 보통의 세계적인 인지도 때문인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한다. 보통 두 달 전부터 모집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정원이 마감된다.
- 강사진: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유명인사보다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한다. 광고기획자, 작가, 철학자,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살려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독서치료(Bibliotherapy) 및 심리상담(Psychotherapy)

- 독서치료(Bibliotherapy): 개인 별 특성 및 독서 스타일 등을 고려해 그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한다. 일대일상담 80파운드(약 14만 원), 커플상담 140파운드(약 25만 원), 아동상담 80파운드(약 14만 원).
- 심리상담(Psychotherapy): 전문가에게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상담 100파운드(약 18만 원), 경력상담 250파운드(45만 원), 창의성계발상담 125파운드(약 23만 원), 이성관계상담 125파운드(약 23만 원).

### 공간 대여

- 런던 내에서도 문화적 독창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더 스쿨 오브 라이프는 자체 수업 및 행사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외부에 공간을 대여한다.
-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게 꾸며진 더 스쿨 오브 라이프의 공간은 모임, 워크숍, 파티 등에 적합

하다. 1층 공간은 읽어 볼만한 책과 프로그램 소개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선물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은 모임 참석자들이 도착해 차를 한 잔 하거나 책을 둘러보는 등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본격적인 모임 진행을 위한 지하 공간은 25명 정도의 인원이 넉넉하게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60명 정도의 인원이 파티를 열 수 있는 규모다.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및 와이파이 등 원활한 모임 진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다. 간단한 음식 제공도 가능하다.

- 공간 사용료: 하루(09:00~17:30) 395파운드(약 71만 원), 반나절(09:00~13:00 또는 13:30~17:30) 245파운드(약 44만 원)

### 연락처

•

- 홈페이지: [www.theschooloflife.com](http://www.theschooloflife.com)
- 주소: 70 Marchmont Street, London WC1N 1AB
- 전화: +44 (0)20 7833 1010
- 이메일: [info@theschooloflife.com](mailto:info@theschooloflife.com)



더 스쿨 오브 라이프의 공간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이 있다.  
현관 및 1층 공간(위),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지하공간(아래)



## 공부, 삶에 접속하라

더 스쿨 오브 라이프의 수업은 배움을 추상적 학문으로 대상화하기 보다는 삶의 한 복판으로 가져온다. 즉,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이기에 그 고민의 깊이나 진정성,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과 자기 주도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공부란 그런 것이 아닐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의문과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공부를 통한 앎이 그저 정보의 축적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일상의 순간 순간을 그저 그렇게 흘려 보내지 않고, 그 순간에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맡긴 채 끊임없이 느끼고 배워가는 것. 더 스쿨 오브 라이프는 그런 공부를 추구하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삶의 학교'다. 📖

좋은 반응을 얻었던  
강좌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책 제목과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기타 ⑤ 더 스쿨 오브 라이프



더 스쿨 오브 라이프의  
수업은 유쾌하고  
진지하다.  
그리고 즐겁다.

## 영국에서 불어오는 ‘수상한’ 바람

### 대안교육 운동

### 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

“선생과 학생이라는 구분은 필요 없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것이 있다. 공부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동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부는 가지런히 정형화된 지식 체계를 축적하는 정체된 경험이 아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 대화와 아이디어 교환이 어우러지는 역동적 경험이다.”

“무엇보다, 공부는 비싼 이유가 없다.”

131

우리는 이번 탐방을 계기로 고등 교육의 상품화, 엘리트화에 저항하는 영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영국의 대안교육 운동은 역사가 그리 짧지 않다. 특히 최근 ‘점령하라(Occupy)’, ‘아랍의 봄(Arab Spring)’ 등 전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운동이 새롭게 고조되고,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과 인문·사회·예술 분야 교수에 대한 연구비 보조 삭감 조치에 자극 받아 운동에 강한 탄력이 붙었다. 아래의 내용은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Tent City University)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는 이름 그대로 텐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아큐파이 런던(Occupy London) 시위를 위해 텐트 아래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 공동체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금세 워크숍 일정이 뽐뽐하게 잡혔다. 시위가 진행된 몇 개월 동안 일련의 저명 작가, 사회활동가, 언론인, 교수 등이 워크숍을 열었고, 소핑객, 학생, 관광객 등 소위 전문가에서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금융위기, 아랍의 봄, 신학, 신용협동조합 설립하기 등 다루는 주제도 매우 광범위했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에너지 넘치는 의견 교환과 질문을 통해 정치·사회·교육적 통념에 도전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뒤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수립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아큐파이 2.0(Occupy 2.0)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인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 역시 제2라운드 활동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 홈페이지([tentcityuniversity.org](http://tentcityuniversity.org))에서 이 공동체의 성장과정과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정보 더. 홈페이지 메뉴 중 ‘Economics’ 를 클릭하여, ‘Occupied Economics’라는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강해 보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Diploma in

아큐파이 런던  
참가자들이  
텐트 아래 모여 함께  
공부하고 있다.



Occupied Economics' 또는 'Certificate in Occupied Economics'라는 수료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경쾌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재미있다.

### 소셜 사이언스 센터(Social Science Centre)

2010년 여름, 높은 접근성과 참여자들 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링컨(Lincoln) 지역에 그 싹을 틔웠다. 전통적인 형태의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향하는 학교로서 기존의 대학과 경쟁할 생각은 없다. 소셜 사이언스 센터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2012년 가을에 첫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등록금은 없다.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구분도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비위계적,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된다. 약 20명의 입학생을 받을 계획이며, 대학 학위에 비견될 졸업 증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형식적으로 종이 한 장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적, 학문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증명서를 수여한다. 학사 학위는 6년, 석사는 4년, 박사는 8년 정도의 파트타임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학문적 능력과 우수성 검증을 위해 준회원 자격의 전문가 그룹에게 객관적인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정해진 등록금은 없지만, 원하는 이는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대학 연구 보조금 삭감 조치에 의해 촉발된 이 운동은 대학의 시장 상품화에 저항하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소셜 사이언스 센터는 협동조합 방식을 지향하므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 배우며 함께 기관을 운영한다. 수업 역시 이러한 지향 아래 열린 토론, 질충, 협업으로 진행되며, 조사와 연구 또한 학생과 교수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3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를 꿈꾼다. 지역

에 튼튼히 뿌리를 둔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누며 협동하는 학습 공동체를 꿈꾼다.

### 리얼리 오픈 유니버시티(Really Open University)

많은 대안 교육 운동이 진정한 대중 지성 향연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웃과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말이다.

리얼리 오픈 유니버시티는 이러한 학습 공간을 지향하며 리즈(Leeds)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이들의 목적은 개인의 창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를 지향한다.

대중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리얼리 오픈 유니버시티 활동의 정수는 공간 프로젝트(Space Project)이다. 처음에는 학교 밖 학습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얼리 오픈 유니버시티의 공간을 외부에 임대해 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임대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공간을 이용하는 각각의 사람들과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에 있다.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다. 공간 프로젝트 담당자는 공간 이용 신청 내용을 살펴보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맺어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의 홈페이지(우),  
Occupied Economics 과정  
수료증을 들고 미소 짓고 있는  
아류파이 런던 참가자.



준다. 일종의 큐레이터, 또는 중매쟁이인 셈이다. 홈페이지 (spaceproject.org.uk/reallyopenuniversity.wordpress.com) 에서 이들의 활동과 만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더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풀(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더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풀은 소수를 위한 특권적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꿈꾼다.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단순히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기한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예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 사회활동가, 교육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활동가들이다. 첫 프로그램으로 2011년 10월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했으며, 2012년 10월부터는 'Cultural Praxis'라는 3년 간의 학사 학위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 커리큘럼은 홈페이지 (thefreeuniversityofliverpool.wordpress.com) 참조.

### 각 단체 홈페이지

- 텐트 시티 유니버시티: [tentcityuniversity.org](http://tentcityuniversity.org)
- 소셜 사이언스 센터: [socialsciencecentre.org.uk](http://socialsciencecentre.org.uk)
- 리얼리 오픈 유니버시티: [spaceproject.org.uk/reallyopenuniversity.wordpress.com](http://spaceproject.org.uk/reallyopenuniversity.wordpress.com)(블로그)
- 더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풀: [thefreeuniversityofliverpool.wordpress.com](http://thefreeuniversityofliverpool.wordpress.com)

대안교육 운동 단체들의 홈페이지.  
이들의 다채로운 활동만큼  
개성도 뚜렷하다.



## 대안교육 운동, 흐름 이어가려면

소셜 사이언스 센터에서 활동하는 마이크 니어리(Mike Neary)에 따르면, 영국에서 실험적 대안교육 운동의 활성화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의 양극화 심화,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각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뭔가 해야만 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면서 지금의 흐름이 조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니어리는 이러한 흐름에 단순히 몸을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각자가 그 흐름의 주체로 나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영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다른 지역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복사(Copy)’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아무리 혁신적인 운동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복제는 해당 운동을 또 다른 형태의 상품 및 대량 생산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그 운동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 영국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남경아(수원시평생학습관 국장)

138

얼마 전 읽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3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0년 기준 평균 22.5%인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3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평균 61%라고 한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촉진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5%로 OECD 24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 물질 자본과 구별해 ‘제3의 자본’으로도 불리는 ‘사회적 자본’은 학자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지만, 대체로 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조건이나 역량으로 규정된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폐해를 넘어 보다 행복한 사회,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생학습의 목적의 하나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평생학습 사회,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OECD 29개국 중 22위, 사회적 갈등 순위는 OECD 27개국 중 24위라고 한다.

## 몇 가지 물음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학교와 사교육 기관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자치단체 평생교육원, 대학과 민간의 평생교육 시설,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백화점 문화센터 등 수많은 교육 기관과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도 OECD 국가 중 평생학습 참여율이 19위에 머물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단다.

지식정보화 사회, 고령화 사회를 맞아 평생학습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제 평생학습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취미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한 필수 교육이 되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82개의 도시를 학습도시로 선정했다. 한국의 평생학습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체계를 갖춰나갔다.

하지만, 평생학습 현장에서 있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그간의 평생학습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 연대, 협력과 같은 공공적인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혹은 하드웨어가 잘 갖춰진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었을까. 시민들도 스스로 배움을 조직하고 가꾸어 나가는 적극적 자세보다는 그저 가까운 기관에서 입맛에 맞는 강좌를 골라 수강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만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학습을 통해 개인이 변화하고, 변화된 개인이 모여 사회를 더 살맛나게 만드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친목과 취미 모임을 뛰어넘는 진정한 학습공동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학습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떠났다. 평생학습, 시민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과 정책, 총론적 논의보다는 현실에서 길어올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고민과 실험, 도전의 사례를 찾아 영국으로 떠났다. 시민이 주체적,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일상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지, 학습을 통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제3섹터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국 사회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고 싶었다.

서로 다른 사회, 서로 다른 조직, 서로 다른 세대의, 그리 길다고는 할 수 없는 만남의 결과가 이 자료집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이곳 수원에서, 현장에서 다시 묻고, 확인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실천은 이미 시작되었다.

## 런던이 알려준 것

### 진정한 학습공동체의 ‘함께’와 ‘아래로부터’의 철학정신 (U3A / 더 캠던 타운 세드)

- “모든 학습은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
- “탑-다운(Top-down)방식은 오래 가지 못한다. 더디더라도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 “작업과 학습은 일처럼 하지말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
- “서로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오픈하고 또 다른 사람(그룹)과 공유하라.”
- “학습의 무브먼트(Movement) 정신을 가져라.”
- “지속가능한 학습 협동조합(Learning Co-op)을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이다.”

U3A의 이안(Ian)과 더 캠던 타운 세드의 마이크(Mike)가 우리에게 수차례 강조하고 또 당부한 위의 말들은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의 자발성이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시민참여, 시민주도란 이름 아래 실행되어 온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자율, 자치, 자조라는 ‘시민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왔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기관은 프로그램 공급자, 시민은 프로그램 수요자라는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배움을 조직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학습공동체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학습의 목적성과 지속가능성이다. 학습공동체라면 단순한 친목모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생학습 현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습 동아리들이 단순한 사



교 모임을 넘어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 기관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시민교육 (WEA)

1903년에 설립된 영국 최대의 성인교육기관 WEA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 짧은 시간에 그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WEA의 조직형태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과 시민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먼저 모든 교육의 기획이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브랜치(Branch)라는 현장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기관들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민 욕구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의 성향과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기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브랜치가 일상에서 시민의 교육 욕구와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설계된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했다. 단순한 수요조사를 넘어 어떻게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WEA 관계자는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으로 브랜치를 운영하는 일이 솔직히 어렵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과정 자체가 일상의 민주주의”임을 강조했다. 우리가 왜 자원활동을 통한 참여를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다.

WEA에서 펼쳐지는 모든 학습은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WEA는 단순한 강의 중심, 특강식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이들은 수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었다. WEA 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원활동가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교실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학습이란 단순히 강의실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개인적인 학습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일상의 토론,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맺기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WEA의 사례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파트너십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일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공동체를 대변하는 지역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역 현장에서 네트워크의 힘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WEA의 조직 구조와 프로그램을 당장 한국의 평생학습 현



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향후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개최할 컨퍼런스에 WEA 관계자를 초청해, 그 동안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일상의 공동체(더 유)

어떤 교육기획서든 ‘교육 목표’ 항목을 살펴보면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공동체’다. 지역 공동체 형성, 공동체성 함양, 공동체성 회복……. 더 나아가 요즘에는 마을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공동체가 화두다. 그런데 시민교육을 기획하는 우리에게 제조차 가끔은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어렵고, 피곤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성공한 공동체로 소개되는 사례들이 너무 거창하고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더 유의 ‘느슨한 유대(Weak Ties)’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만 구성되는 무언가를 뜻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친밀함, 소통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 공동체 한마당, 주민 리더십을 말하기에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집 남자와도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법, 윗집 소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 이웃집끼리 편하게 택배 맡아주는 요령 등 우리가 일상에서 꼭 익히고 훈련해야 할 소소하지만 중요한 내용부터 시민교육의 주제와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더 유의 교육방법과 학습형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더 유에서 표방하는 짧고(Short), 재미있으며(Fun), 접근성이 좋고(Easy Access), 일회적 성격(One-off)을 갖는 교육법을 각각의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면 좋겠다. 특히 고정된 교육장소를 떠나 도심의 쇼핑몰, 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아가 진행하는 팝업(Pop-up)교육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유에서는 이러한 교육에서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 교육을 받은 평범한 이웃들이 조력자가 되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142

짧고, 재미있고, 일회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유에서 실행하는 교육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느슨한 유대’에 기반한 더 유의 교육법은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고,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교육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쉽고 단순해 보이는 교육이라 할 지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시민교육 수단으로서의 공간(더 허브 / 더 스쿨 오브 라이프)

영국 탐방에서 인상 깊게 지켜본 것 중 하나가 ‘공간’이다. 일례로 영국을 대표하는 펍(Pub)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교류하고 크고 작은 일상의 문화를 공유하는 곳으로, 영국인들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젊은 청년에서부터 나이 든 시

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공간에 출입하고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는 무척 새로웠다.

딱히 정형화된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더 허브’와 ‘더 스쿨 오브 라이프’에서 우리는 공간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크든 작든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된다. 공간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형성을 시도할 수 있고, 공간이 있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두 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공간이 너무 엄숙한 것도 사절이다. 이동과 변형이 가능한 구조물, 개인 작업과 차 마시기, 모임, 교육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공간이 눈에 띄었다. 특정인이 공간을 독점하지도 않는다. 공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저 비어있는 시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공간이 품고 있는 개방성, 자율성, 창의성 덕분에 더 자유로운 사고와 더 풍부한 인생의 지혜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미있고 의미있는 ‘공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길담서원, 이음 책방과 같은 동네 서점들, 일상과 공부 그리고 관계가 살아 있는 용인의 문탁 네트워크, 개인 작업과 공동 작업이 모두 가능한 코업의 공간들, 토즈와 같은 상업적 공간, 그리고 근래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싱크카페의 오프라인 공간까지. 이러한 공간들은 책방, 카페, 소규모 강의실, 공동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자랑한다. 공간이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해당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는 다양할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최근 공간을 매개로 한 민간기관들의



다양한 실험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공공기관, 평생학습 기관의 공간은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하다는 것이다. 평생학습 기관이 강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네트워크와 다양한 활동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려면 공간부터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들이 이러한 시민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 축제의 재발견 (어덜트 러너즈 워크)

해마다 가을 이맘때쯤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고 작은 축제로 분주하다. 평생학습 축제도 빠질 수 없다.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평생학습 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이 협력해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한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조차 이미 평생학습 축제라는 것이 매해 거의 엇비슷하게 치워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 일단 지역에서 가장 큰 광장에 커다란 부스들을 일렬로 나열해놓고는 대개 2~3일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용이 반복된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새로운 학습자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평생학습 축제에 새로운 학습자들의 발길이 뜸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평생학습 축제인 어덜트 러너즈 워크에 주목할만하다. 어덜트 러너즈 워크는 조용하지만 내실있는 축제다. 전국 단위 축제이지만, 요란한 이벤트와 인력 동원은 없다. 큰 행사라고 해야 평생학습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 정도다. 축제의 핵심은 지역 평생학습 기관들이 새로운 학습자를 위해 개설하는 수백 가지의 맛보기 강좌다. 요란한 홍보 부스는 없다. 그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공공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강좌들이 진행될 뿐이다. 화려한 축제 풍경을 기대한



우리 탐방단에겐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여운은 길게 남았다.

우리의 평생학습 축제도 이제 바꿔보자. 부스 중심, 광장 중심, 이벤트 중심에서 탈피해 동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권역별로 동네 특성을 살려 작은 규모로 시작해봐도 좋겠다. 민-관 파트너십 아래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당장 이곳, 평생학습도시 수원에서부터, 새로운 모델의 평생학습 축제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 한국 평생학습 현장에 부는 새로운 바람

최근 몇 년전부터 한국의 평생학습 현장에서도 조용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학습 기획자로 나서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학습 장소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옮겨가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민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사례로는 대전의 ‘배달강좌제’를 꼽을 수 있다. 5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특정 강좌를 요청하면 어느 곳이던지 강사를 파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 이미 10여 개의 도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배달강좌제는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획기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평생학습 시설 건립이 힘들다는 재정적인 약점을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라는 강점으로 전환한 혁신 사례이기도 하다.

‘지혜로 열린 대학’은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 ‘행복설계아카데미’ 수요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학습공동체다. 2010년 영국의 U3A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되었다. 지혜로 열린 대학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회공헌의 첫 무대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율적으로 학습을 조직해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場)이기도 하다. ‘아파트에서 농부되기’, ‘초급 라틴어 배우기’, ‘생활법률에서 무료상담까지’ 등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지혜로 열린대학은 최근 ‘U3A 서울’로 이름을 바꾸고 국제 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2011년부터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라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가진 숨은 고수들을 찾아내 개인의 지혜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르치는 이의 활동은 모두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생, 주부, 만화가, 웃음치료사, 교육전문가,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해 아기자기한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수원 '누구나 학교'의 실험

수원시는 전국에서 평생학습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크고 작은 평생학습 기관만 해도 190여 개가 넘는다. 최근 평생학습 도시 수원에서도 새로운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모델의 씨앗이 뿌려졌다. 일명 '누구나 학교'가 그것이다.

왜 전문 강사만 강의를 하는 것일까, 꼭 학습기관에서만 강의를 개설해야 할까,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을까, 학습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는 고정불변일까, 어떻게 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등.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누구나 학교의 탄생도 이러한 물음들에서 출발했다. 누구나 학교는 삶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강사가 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서로 배우는 시민참여형 학교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플랫폼 역할을 맡고, 주로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단계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강의를 개설할 시민을 모집 중인데, 사회적기업 대표, 시장 상인, 동아리 회원, 주부, 대학생, 직장인, 전문 강사 등 재능을 나누겠다고 나선 이들의 면면이 다채롭다.

물론 걱정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강의'는 전문 강사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탓에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좋은 뜻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영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할 지도 고민된다. 전문 강사들의 재능 나눔이 혹시 타 기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지 걱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정신에 입각해 운영되어야 할 누구나 학교에 하나둘 작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 어렵다"라는 실무자들의 탄식도 들려온다.



**2012 누구나학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나학교는 수원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참여하는 영리 배움의 공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분야 전환은 전문인력인력 개발  
 창업지원기가 전환은 수원경제구역 유지하기  
 대우주부의 생활보육기 전환으로 읍내의 노후유  
 언행보육기가 전환은 정통영어 노후유  
 내일학교가 구멍에 배우는 시민친화적 전환기  
 전환을통해서 우리는 대소통 ...!

누구나학교에서는 삶의 재능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은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 누구나학교는 영리 배움의 공간입니다.  
 ■ 누구나학교는 강사, 수강생, 지역, 교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 누구나학교는 영리 배움의 공간입니다.  
 문의 : 02-477-4771(평일) 02-477-4772(주말) 02-477-4773(주말) www.jeaminskwonoo.kr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의 손맛이 딸에게 이어지고, 장인의 손길이 제자에게 전수 되듯이 한 사회의 지식과 경험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물 흐르듯이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움의 열매가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웃으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흘러가게끔 하는 평생교육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누구나 학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이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부디 그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기를, 그리하여 시원한 나무 그늘을 드리우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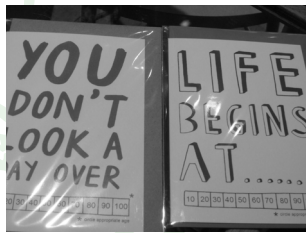
## 할 것이다, 갈 것이다

영국 탐방을 통해 배운 것을 짧은 시간에 모두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않고 실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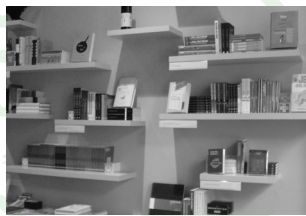
먼저,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인큐베이팅한 누구나 학교를 수원시의 다른 평생학습기관들과 공유하고 확대할 것이다. 은퇴한 시니어들을 위한 ‘U3A 수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 상담사’는 WEA의 브랜치, 평생학습 홍보 자원활동가 CLC처럼 평생학습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와 역할을 개편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세부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공간을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시민 공간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작업장도 좋고, 누구나 공부도 좋다. 명칭이야 뭐든 간에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만나고, 작업하고, 연습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마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아직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런던의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떠오른다. U3A의 이안, 브라이언, 토니. WEA의 앤, 리사. 더 캠던 타운 세트드의 마이크. 기꺼이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고 맞아준 유니스와 토치 부부. 영파운데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 소정과 윤하씨. 그리고, 우리는 보고 배웠다. 학습을 통해 개인이 변화하고,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실험을. 인종, 연령, 세대를 초월해 열정과 신념을 갖고 묵묵히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심을 다해 교감했고 감동받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삶과 배움, 그리고 성장. 이를 간결하게 줄인 말이 ‘평생학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누군가와 의 관계맺음을 통해 배움을 주고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꿈꾸는 학습 자치의 장.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평생학습의 미래다. 한 사회의 성숙은 시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믿음 아래 멀리 내다보려 한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역량을 쌓아가며 우리는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탐방단은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수원의 평생학습은 갈 길이 멀다. 다시 짐을 꾸린다. 🏠



스쿨오브라이프



첫째날



허브







캠던타운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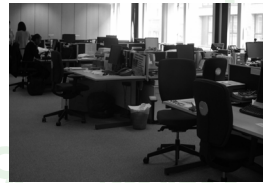


셋째날



WEA 런던





WEA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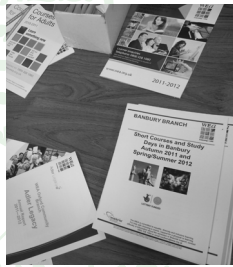


넷째날



영파운데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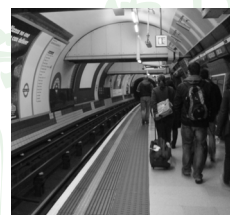
런던



기타



런던





◀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수원시평생학습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 주요기능

### \* 허브-네트워크

- ▶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 ▶ 지역단체 및 전문단체 연계 사업 활성화
- ▶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 평생학습종합정보망 구축

### \* 싱크탱크

- ▶ 평생학습 통합정보 발신
- ▶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 정기 심포지엄 개최
- ▶ 수원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민관 파트너십 강화

### \* 교육프로그램

- ▶ 차별화된 인문학 강좌 운영
- ▶ 지역리더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 지역특화 과정 운영
- ▶ 일자리 연계 및 직업능력향상과정 운영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한 교양강좌 운영

### \* 시민참여

- ▶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 평생학습상담사 및 학습자원활동가 양성
- ▶ 학습카페, 시민사회자료관 활성화

## 주요사업

### \* 교육사업

#### ※ 교육운영 체계

정규학기(각 4개월) 1학기(3월-6월) / 2학기(9월-12월)  
계절학기(각 2개월) 겨울학기(11-2월) / 여름학기(7-8월)

### 01 인문교양

명사초청 특강	사회 각계의 명사를 모시고 이 시대 화두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을 모색 (월 1회)
담쟁이 문화살롱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공감을 나누는 자리 (월 1회)
수원시민 인문대학	대학의 교육과정 성격으로 운영하는 긴 호흡을 가진 깊이 있는 인문학 (철학, 역사, 문학 등 10개 주제)
청소년인문학 & 교사인문학	대상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길 위의 학교	수원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찾아나서는 탐방 프로그램

### 02 시민자치

누구나학교	수원시민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참여하는 열린 배움의 공간 (연중 계속) ( 누구나학교카페 ) <a href="http://cafe.daum.net/suwonnuguna">cafe.daum.net/suwonnuguna</a>
찾아가는 학교	새로운 교육기회와 경험을 원하는 단체, 기관, 학교, 기업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 (연중 계속)
학습동아리	수원지역의 자발적인 학습모임 성장을 위해 공간지원, 정기간담회, 동아리공동행사 등 지원

### 03 지역리더, 전문가 양성

평생학습상담사양성과정 (초급/중급)	평생학습에 필요한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수원모금전문가양성과정	지역활동가들이 모금의 이론과 실습을 익혀 모금전문가로 성장
수원재무관리사양성과정	재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모색

## 04 직업능력 향상

업무활용백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배우는 과정 ◀ 예시 ▶ 오피스프로그램, 동영상편집, 마인드맵, 프레지 등
비영리단체 실무자 역량강화과정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업무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시 ▶ 기획서 작성법, 교육기획학교, 구글앱스활용 등

## 05 문화예술, 생활문화 과정

문화예술학교	수원지역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전문과정 ◀ 예시 ▶ 서각, 뮤지컬, 드로잉, 글씨 등
거북이공방 워크숍	환경을 생각하고, 슬로우 라이프와 핸드메이드를 지향하는 공방프로그램 ◀ 예시 ▶ 에코교실, 보자기함용법, 남방큰돌고래 인형만들기 등
맞춤형 워크숍	성별, 세대별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워크숍 운영 ◀ 예시 ▶ 남과여 워크숍, 엄마와딸 워크숍, 아빠와아들 워크숍 등
생활문화강좌	컴퓨터,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씨 등 기본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06 사회통합 및 어린이/청소년 과정

장애인청소년강좌	학습 소외 계층인 장애인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공예, 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토요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스피치, 청소년 포크기타 등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토요교실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창의력 만화교실, 경제교실, 환경교실 등 운영

※ 수강신청 |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혹은 방문 [1층 반딧불이상담실]  
수강문의 | tel 070-4477-6515/6

## \* 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

### 01 수원평생교육 동향리포트 '와'

평생교육 관련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지

- ◀ 내용 ▶ 이슈, 인물, 기관소개, 교육소개, 이로운 정보, 국내외 동향 등
- ◀ 형태 ▶ 온라인 뉴스레터
- ◀ 발간 ▶ 격주 1회 발간

### 02 와글와글 포럼

수원 평생교육의 공통이슈, 문제에 대해 집단지성 발휘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간 실질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 ◀ 내용 ▶ 주제강연, 사례발표, 그룹워크 /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
- ◀ 일정 ▶ 격월 1회 (연간 6회)

### 03 국내외 사례연구

국내외 선진 기관들의 평생교육 운영체계 및 세부 프로그램 조사연구

-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온라인 조사,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
- ◀ 보고형태 ▶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 \*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사업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은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도서와 기록물을 수집하여 열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01 명사 및 시민단체의 도서와 기록물 열람

- ◀ 위탁자료 ▶ 소셜디자인네 박원순씨가 위탁한 도서와 기록물 약 5만여 권
- ◀ 신간도서 ▶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신간도서 3천여 권 정도

### 02 시민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진행

- ◀ 전시 ▶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 인물, 지정일 등을 바탕으로 기획
- ◀ 교육 ▶ 소규모의 인문학 강연, 자료관 투어, 독립영화상영, 강독 커뮤니티 등

